Life p/17
뷰티업계 '컬러 마케팅' 활발

metro®
메트로 2014년 8월 11일 월요일 제3033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21

'명량' 1000만 돌파…새 역사

에볼라 검역 긴급 대책회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검역소에서 열린 '에볼라 바이러스 검역 태세 점검 긴급 국립검역소장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반기 대기업 취업시장 개막

삼성그룹 등 일정 확정… 채용규모 소폭 증가로 '숨통'

하반기 취업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삼성그룹의 공채 일정이 알려진 가운데 주요 대기업이 채용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취업 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하반기 채용 규모가 당초 예상과 달리 소폭 증가해 구직 시장이 오랜만에 숨통을 트게 됐다. 하반기 채용을 거르던 은행권들도 신입 행원 모집을 재개해 경직된 금융가 취업 시장에도 화색이 돌고 있다.

하지만 이공계 강세가 계속되면서 인문계 구직자들의 일자리 전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다음달 22일부터 26일까지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취업 수능'으로 불리는 삼성그룹 필기시험은 10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기타 주요 대기업은 대부분 다음달 1일부터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한다. 현대·기아차, 두산, SK, CJ는 다음달 1일부터 신입사원 접수를 시작하며 롯데는 2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각 기업은 10월에 필기시험과 면접 전형을 거쳐 11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대기업 필기시험 일정이 통상 10월 주말에 몰리기 때문에 필기시험일이 겹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지원 횟수에 제한이 생긴다.

대기업들의 하반기 채용 규모가 다소 늘어난 것에 대해 취업포털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최근 정부가 일자리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계에서 하반기 신입사원 규모를 상향 조정했다. 특히 공기업과 은행권에서의 채용 증원 움직임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용 방식은 기존의 흐름을 유지하되 '스펙 초월' 전형이 하반기에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정부 평가와 기업의 채용 만족도가 높았고 구직자 수준도 좋았다는 평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반기 채용 규모가 늘어도 인문계 취업의 문은 줄어들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전화기'(전기전자·화학·기계)로 불리는 이공계 지원자의 취업 확률은 높아졌다.

삼성그룹은 지난 상반기 신입사원의 약 85%를 이공계 출신으로 선발했으며 현대차와 LG그룹도 80% 이상을 이공계 전공자로 구성했다.

SK하이닉스의 이공계 채용 비중은 95%에 달했다.

변지성 잡코리아 팀장은 "최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과 플랜트 부분의 신규 인력을 늘리고 있다. 대기업 주력 계열사들이 대부분 제조업과 전자·화학 업종인 점도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상경계 인력이 담당하던 마케팅·영업 등의 직무에서도 이공계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기본 업무 능력에 제품에 관련된 전문지식과 기본 소양까지 갖춘 이공계 출신의 효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기업 하반기 공채 시즌이 다가오면서 수험가와 취업 커뮤니티는 각종 낭설과 정보로 술렁이고 있다.

임민욱 팀장은 "신입공채 정보는 해당 기업 홈페이지가 제일 정확하다"고 조언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정부, 비상 시 일본 에볼라 치료제 수입

정부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일본에서 임상시험 중인 에볼라 치료제 수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에볼라 출혈열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가장 먼저 승인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일본 후지필름의 에볼라 치료제 수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치료제는 항바이러스제(성분명 파비피라비르)로 독감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됐으며 현재 3상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또 생쥐를 대상으로 한 전임상시험에서 에볼라 출혈열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에볼라 감염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이에 미국 국방부는 현재 이 치료제의 동물실험이 끝나면 곧바로 사용 승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단 FDA의 상황을 봐야 하겠지만 해당 제약사에서 국내에 시판 허가를 신청하면 정식 수입 허가를 내줄 수도 있으며 비상 상황에는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필요한 양 만큼 우선 국내에 들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에볼라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허가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재용기자 hsoul38@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교황 환영 현수막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앞두고 휴일인 10일 서울 광화문 거리에 방한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조현룡 체포동의안 처리될까

'관피아' 관련 현역의원 사법처리 첫 사례… 국회 일정이 변수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이 공직 비리를 파헤치면서 처음으로 현역 의원인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르면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회기 중인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10일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번주 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고 세월호 참사로 공직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현역 의원을 개인 비리로 사법처리하는 첫 사례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 일정이 변수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한다.

여야는 13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당일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이 경과한 14일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하는데 15일부터는 연휴가 시작된다.

검찰로서는 12일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려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13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상황을 바랄 수밖에 없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달 19일 끝나고 다음 임시국회는 20일부터 바로 시작된다. 조 의원 체포동의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결국 8월 하순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연중무휴 국회' 하면 뭐해!

170일간 개회에 법안 처리 사실상 '제로'

올해 2월부터 매달 임시국회가 소집돼 사실상의 '연중무휴 국회'가 이어지고 있다. 1월3일 막을 내린 연말 국회까지 포함하면 10일 현재까지 올해 222일 중 170일간 국회가 열렸다. 하지만 생산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여야간 정치적 공방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19일로 '7월 국회'가 종료되면 곧바로 8월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9월1일부터는 100일간 회기로 정기국회가 12월 초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한 각종 현안이 국회로 몰리면서 예년과 같은 여름 휴식기도 사라진 상태다.

세월호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셋째주에 잡혀 있고,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도 비슷한 시기에 예정돼 있다. 또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정감사가 2차례 분리실시되게 돼 26일부터 1차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5월 초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출범시킨 여야는 이후 3개월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정치권이 약속한 진상규명이나 이번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련 입법 등 후속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은 아직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김민준기자

세월호 가족대책위 만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가족대책위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특별법 합의 박영선 '진퇴양난'

당 안팎 반발 거세자 "추가협상" 발언…오늘 의총 최대 고비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놓고 당 안팎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는 물론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준다는 계획마저 관철시키지 못했다.

지난주 유가족들은 새정치연합 당사를 항의방문했고, 대학생들은 국회 원내대표실에 진입을 시도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당 내에서도 '친노'계 좌장격인 문재인 의원이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게 도리"라며 재협상을 요구한 데 이어 특별법 합의에 반발하는 소속 의원 10여명이 따로 모임을 갖는 등 조직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결국 박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께 예정했던 국민공감혁신위 1차 인선을 미룬 채 논란의 수렁에서 탈출하기 위한 묘책찾기에 몰두했다. 이어 10일 "추가 협상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세월호법 논란'이 새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미 합의된 내용을 재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13일로 계획했던 세월호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마저 유동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합의의 배경과 내용을 보고하고 소속 의원들의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의원총회에서 당내 반발이 거셀 경우 새누리당과의 합의파기를 선언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김민준기자 mjkim@

뉴스&뉴스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출국 금지

● 검찰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사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출국금지하고 12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현역 부적응자 매년 4천명 조기 전역

●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복무 기한을 채우지 못한 채 전역하는 군인이 한 해 평균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영교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사람은 1만7801명으로, 일반 병사가 1만5454명을 차지했다.

감사원 "배도 없는 아라뱃길 인력 낭비"

● 물류 기능을 상실한 경인아라뱃길에 해양사무소와 출장소를 중복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해양항만청은 2012년 정원 15명의 경인해양사무소와 2명의 김포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김포터미널에는 올해 1분기 단 1척의 배도 입항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김포출장소 운영은 낭비라고 지적했다.

윤병세·리수용 남북 외교수장 악수만

ARF 만찬 의견교환 안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환영 만찬에서 만나 가벼운 인사 만을 나눴다.

윤 장관은 ARF 의장국인 미얀마 주최로 9일 저녁(현지시간) 네피도 국제컨벤션센터(MICC)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리 외무상과 웃는 표정으로 악수했다. 윤 장관은 악수를 건네며 "만나서 반갑다. 요즘 외국방문 등 활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만찬 좌석으로 돌아가면서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이번 ARF에서 남북 외교수장간 만남은 다자회의 석상에 한 자리에 참석하는 것 이상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준기자

군사법원 '잘못된 판결' 2배

대법원 파기율 민간보다 높아… 제도 개혁 등 한목소리

군인과 군무원 등이 연루된 형사 사건 심리를 전담하는 군사법원의 판결이 민간법원의 형사판결에 비해 오류가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대법원이 처리한 군사법원 사건 수는 총 63건이었다. 이 가운데 4건이 파기환송·이송돼 파기율은 6.3%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대법원이 군사법원 사건 104건을 처리해 5건을 파기했다. 파기율은 4.8%였다. 이는 최근 수년간 2~3%에 그친 민간법원 사건 파기율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대법원이 파기한 민간법원 형사사건 비율은 2008~2012년 5년 평균 2.8%에 그쳤다. 2008년 3.9%에 달했으나 추세적으로 낮아져 2011년 2.1%, 2012년 2.3% 등 2% 초반대를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군사법원 사건이 민간법원 사건보다 2배나 더 많이 파기되는 것은 그만큼 원심 판결에 오류가 많다는 뜻이다.

군 검찰 출신 법조인은 "폭행이나 추행 등 단순 형사사건이 대부분이라 치밀한 법리 검토가 미흡한 듯하다"며 "군사법원 시스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군 형법 위반 사건만 심리하도록 하는 재판권 축소, 국방부 소속 군 판사단에 의한 순회재판 실시, 일반 병사에 의한 사법참여 확대, 군 검찰 제도 개혁 등이 구체적 대안으로 떠올랐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외출 나온 장병들 '윤일병 사건'으로 뒤숭숭한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에서 주말 외출한 육군 장병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일병 사건' 1심 재판장 장성급

3군사령부 관할 공판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의 1심 재판장이 대령에서 장성급으로 바뀌었다.

군 관계자는 10일 "통상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장은 대령급이 맡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3군사령부에서 진행될 (이번) 공판의 재판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26) 병장 등 가해자들의 재판은 애초 사건 발생 부대인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재판 도중 상급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관할하게 됐다. 새 재판부는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된다.

군 관계자는 "피고인 5명은 11일 3군사령부 검찰부로 이송된다"며 "3군사령부 수사팀은 9명으로 구성됐고, 검찰관은 소령 1명을 포함해 5명이 배치돼 12일부터 추가수사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첫 공판은 이달 하순 열릴 예정이다.

/김민준기자 mjkim@

건강보험 현장 상담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13일부터 매월 둘째주 수요일(오후 1~4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건강보험에 관한 상담을 실시한다.

공단은 서울시청의 협조를 받아 공단 서울지역본부 주관으로 자격, 보험료 등 시민에게 건강보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청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시민청을 방문해 피부양자 제도, 임의계속 가입자제도, 보험료 산정기준 및 달라지는 보험적용 기준 등을 문의하면 공단 직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장상담을 실시함으로써 건강보험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친근감 있는 공공기관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욕금지 해운대 태풍 '할롱'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해운대를 비롯한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 입욕이 전날에 이어 10일에도 통제됐다. 피서객들이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출연금 부패 먹이사슬

IT업체 연구원 빼돌리고… 미래부·서울시 공무원은 뒷돈

IT업체 정부출연금을 매개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연구원, IT업체, 서울시 공무원까지 연결된 '부패 다단계 먹이사슬'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NIA 스마트네트워크단 소속 수석연구원 강모(40)씨와 김모(48)씨, IT업체 F사 김모(40)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39·별건 구속기소) 부장과 미래부 이모(48·5급) 사무관, 서울시 박모(44·7급) 주무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7명을 사법처리했다.

미래부 산하 기관인 NIA는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정부출연금을 지원해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모 방식을 통한 사업 수행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 연구원 3명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NIA가 내놓는 과제를 특정 업체가 하청받도록 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총 18개 업체로부터 2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강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F사 김 대표와 함께 NIA를 통해 지급되는 정부출연금 12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들의 총 범죄액수는 약 15억원에 이른다.

박 주무관은 서울시가 관련된 NIA의 개발과제를 하청하는데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IT업체 임모(48·불구속 기소) 대표로부터 약 1000만원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번 돈으로 오피스텔을 사거나 해외로 골프여행을 가는가 하면 유흥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대기업 횡포'에 운 중소기업 사장

대법 "거래처 빼앗은 SK 계열사 2억 지급하라"

SK그룹 계열사에 거래처를 빼앗긴 중소기업 사장이 SK를 상대로 소송을 내 수억 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조모(50)씨가 SKC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조씨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는 1999년부터 SKC에서 열에 반응하는 의료기기용 특수 필름을 공급받아 2001년 영국의 유명 화학회사 ICI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씨의 호황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듬해 ICI가 주문량을 6배 가까이 늘리자 SKC가 조씨 명의로 ICI 측에 공급자가 바뀌었다고 통보하고 직거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후 SKC는 반발하는 조씨에게 2년 동안 직거래 판매 대금의 1.7%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다른 지역의 감열지 독점 판매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SKC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조씨가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자 조씨는 2010년 5월 소송을 냈다.

/윤다혜기자 ydh@

대입 수시지원전략 설명회 '열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015 대입 수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찾은 학부모들이 좌석과 통로를 가득 채우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 성범죄 2년째 증가세

소형 촬영기 보급 '몰카' 주도… 2호선 최다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2년째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올해 1~6월 서울 지하철 1~9호선과 국철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모두 628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성범죄 건수 1026건의 61%로 올해 전체로 환산하면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성범죄는 2010년 1192건, 2011년 1291건이었으나 2012년 84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2013년 다시 1026건으로 증가했고, 현재까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유형별로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이 353건, 카메라 등 기기를 이용한 촬영이 275건이었다. 소형 촬영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몰래카메라'를 찍는 범죄는 2010년 358건, 2011년 448건, 2012년 439건, 2013년 559건으로 증가세를 주도했다.

노선별로는 지하철 이용자가 가장 많은 2호선에서 270건으로 최다 발생했다. 이어 1호선 98건, 4호선 93건, 7호선 85건, 3호선 22건, 9호선 19건, 5호선 18건, 국철 15건, 6호선 5건, 8호선 3건이었다.

/김민준기자

매표소에서 시민의 곁으로

(왼쪽)1984년 2호선 이대역·2014년 2호선 강남역. /서울메트로 제공

지하철 개통 40년… "그땐 그랬지" ④

1974년 8월 15일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됐고 올해로써 4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40년동안 시민들과 함께 발전해온 지하철은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지하철 발전에 따라 역무원의 업무와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예전에는 매표소에서 역무원에게 승차권을 샀지만 역무자동화가 이뤄지면서 자동발매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 매표소에 앉아 있던 역무원도 밖으로 나와 고객서비스를 하고 있다.

/윤다혜기자

창업 기업 공개 모집

서울시와 중소기업지원기관 서울산업진흥원(SBA)는 창업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성공창업 리서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전문 기업이 진행하는 시장 조사는 ▲소비 행태 평가 ▲소비자 인식·수용도 평가 ▲소비자 반응 조사 ▲인지 경로·체험 만족도 조사 ▲고객 사용성·니즈 도출 분야로 구성된다.

올해에는 15개 창업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가하는 창업기업의 비용부담 없이 전액 예산으로 지원된다.

참가신청 자격은 서울에 소재하는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이면 되고 업종 등 특별한 제한은 없다.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SBA 홈페이지(sba.seoul.kr)를 통해 1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SBA 홈페이지의 사업 안내문을 참조하거나 SBA 기업성장팀(02-2222-3890)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고교 1·2학년 학력평가 9월 건너뛰고 11월에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부족으로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지 못하는 서울지역 고교 1·2학년생들이 11월에 시행되는 학력평가는 치를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11월 18일 서울지역 고 1·2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편성한 고 1·2 전국연합학력평가 예산은 1학기에 학력평가를 2회 시행하면서 모두 사용했고, 11월 학력평가 예산은 추경 예산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올해 초 시의회가 연합평가용 예산 11억원을 삭감하면서 예산이 부족해 9월 3일 시행되는 고 1·2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다혜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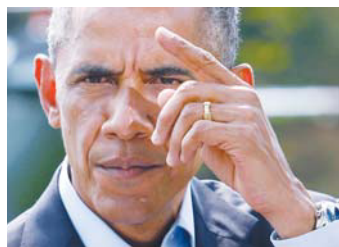
美 이라크서 4차례 추가 공습

오바마, 사태 장기화 가능성 언급… 휴가는 예정대로

미군이 이라크 북부에서 수니파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상대로 9일(현지시간) 이틀째 공습을 단행했다고 주요 외신이 전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전투기와 무인기를 동원, 소수민족인 야지디족 주민을 공격하는 IS에 4차례 공습을 했다고 밝혔다.

목격자들은 IS가 야지디족 300가구에 개종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전했다.

이라크 북부에 거주하는 야지디족은 조로아스터교와 기독교, 이슬람의 교리가 혼재된 전통 종교를 믿는다. IS는 이들을 이단으로 보고 있다. 현재 야지디족은 IS에 둘러싸여 북부 산악 지대에 고립돼 있는 상태다.

이날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라크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미군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개입할지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과 시설이 위협받을 경우 언제, 어디서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오바마 대통령은 자국민 보호를 명목으로 이라크에 대한 '선별적 공습'을 승인했다. IS가 미군이 있는 북부 아르빌로 진격할 경우 공습에 나서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것이다. 미군은 8일 아르빌 인근에서 IS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예정대로 여름휴가를 떠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매사추세츠주의 휴양지 마서스 비니어드에서 2주간 가족과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人面識別系統全球最準

中文大學工程學院研發出一套嶄新的自動人面識別系統，在人面資料庫中有過千組不同光暗、表情及拍攝角度的人面照片，識別容貌準確率達99.15%，準確度為全球之冠，更是首次有系統可超越人類肉眼識別的準確度。

▲中大研發的新系統可準確識別不同人面。(中大提供)

人面部之間的細微差異點，新系統可有效處理有關兩類

안면인식시스템 정확도 99%

metro HongKong

육안보다 높은 식별률

최근 홍콩에서 개발된 자동 얼굴인식 시스템이 인간의 육안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여 화제다.

중문대학 정보공학과 탕샤오어우 교수와 전자공학과 왕샤오강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최근 혁신적인 자동얼굴인식 시스템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다양한 밝기와 표정의 사진으로 시스템을 테스트한 결과 얼굴 식별률이 99.15%에 달했다고 밝혔다.

왕 교수는 "컴퓨터 얼굴인식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동일 인물이 여러장의 사진에서 나타날 때 차이점을 인지하는 것"이라며 "심도 있는 연구 끝에 중문대학 연구팀이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의 영상 모니터링은 단순한 환경에서 소량의 목표물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인식시스템은 복잡한 환경에서 다량을 판별할 수 있어 행정 기관이나 보안 기관이 이 기술을 이용한다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목표물을 포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리=조선미기자

'빨주노초파남보' 색깔 축제 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색깔 축제'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다양한 색상의 가루나 물감을 던지며 즐거워하고 있다./AP 연합뉴스

WHO "내년 에볼라 백신 나온다"

다음달 미국·아프리카 등서 임상시험 예정

내년이면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라디오 RFI는 장 마리 오크위 벨레 세계보건기구(WHO) 백신 예방접종 책임자가 인터뷰에서 "다음 달 에볼라 예방 백신 임상 실험을 시작하면 내년에는 백신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HO는 영국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만든 예방 백신을 다음 달 중으로 미국과 아프리카 국가에서 임상시험을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라이베리아에서 구호 활동을 하다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두 명의 미국인은 본국으로 이송된 후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은 맵바이오제약의 에볼라 치료제 '지맵'(ZMapp)을 투여받았다. 두 미국인의 상태는 투약 후 호전됐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신약의 의학적 효능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WHO는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에서 지난 3월 이후 현재까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1700건 이상으로 이 중 96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국명기자 kmlee@

market index <8일>

코스피
2031.10
(−23.41)

코스닥
544.24
(−2.87)

금리(국고채 3년)
2.50
(−0.03)

환율(원·달러)
1036.00
(−0.80)

저렴한 더덕 드세요 서울 성동구 행당동 롯데마트 행당역점에서 모델들이 더덕 홍보행사를 하고 있다. 30g 미만의 작은 더덕을 시세보다 25%가량 저렴한 5900원(300g/1팩)에 판매한다. /롯데마트 제공

LG가 키 키우네…

LG의 저신장증 어린이 성장호르몬제 지원 사업이 20년째가 됐다.

LG복지재단은 8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저신장 아동 133명에게 12억원 상당의 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을 전달했다.

올해 선발된 아동 중 55명은 지난해 지원을 받은 데 이어 추가 성장 가능성이 커 지원기간을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저신장증은 연간 100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성장호르몬제를 투여해야 한다. /박성훈기자

로또복권 제610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14	18	20	23	28	36	33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3,516,018,375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68,941,537
3등	5개 숫자 일치	1,676,690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전세계 금리 바닥…한은 총재의 선택은?

14일 금통위서 금리 인하 쪽에 '무게 추'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은이 오는 1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2.25%로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경환 경제팀'이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한은에도 정책 공조를 이유로 금리 인하 압박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0.25%포인트 인하된 이후 1년 3개월만에 조정된다.

현재 세계 주요국들은 '금리 전쟁'을 치르고 있다.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를 사상 최저로 낮춰 경기 부양에 나섰다.

미국은 2008년 12월 제로 금리로 낮췄고, 일본도 제로 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두 나라는 양적완화 정책까지 펴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중앙은행(ECB)도 2012년 7월 이후 0%대 금리를 유지해 왔다.

급기야 지난 6월에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15%로 낮추고, 시중은행들이 ECB에 맡기는 하루짜리 초단기 예금금리를 현행 0%에서 -0.1%로 내렸다.

초단기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대로 내린 것은 세계 주요 중앙은행 가운데 처음이다. 이처럼 전세계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채권시장, 금리인하에 베팅

채권시장에서는 벌써부터 8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베팅하는 모습이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8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면서 채권가격이 최근 조정 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채권시장의 전망이 급격하게 수정되면서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기관이 동결을 예상하는 기관의 2배가량 많아졌다.

그동안 대다수 증권사가 연내 기준금리 '동결'을 점쳐왔지만, 지난달 10일 금통위 이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승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통화당국이 8월 기준금리를 0.25~0.50%포인트 내릴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저성장과 저물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아 경기회복 속도가 늦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소수 의견이 없진 않다.

공동락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경환 경제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반영해 금리 인하 기대가 확산했지만, 한은이 시그널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최경환 부총리, 이주열 총재가 모두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한 점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명량' 흥행, 전시장도 인기? 10일 오후 시민들이 세종문화회관 상설전시관 '충무공이야기'에서 모형 거북선 실내를 관람하고 있다. 이날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다룬 영화 '명량'은 개봉 1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연합뉴스

한국 초고속 인터넷보급률 6위 충격

태블릿 사용 적고 공공와이파이 확대 영향

한국의 유무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기준 무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순위에서 한국은 핀란드, 호주, 일본, 스웨덴, 덴마크에 이어 6위에 올랐다.

우리나라의 무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인구 100명당 가입자 103.8명으로 나타났다. 1위인 핀란드는 123.3, 호주는 114.4, 일본은 111.8, 스웨덴 109.8, 덴마크 107.3 순이다.

OECD는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2차례 유선과 무선으로 나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순위를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4월부터 6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011년 12월 조사에서 102.12건으로 OECD 회원국 최초로 무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00%를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조사에서 처음 4위로 떨어진 뒤 지난해 6월 5위를 기록했다.

유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순위도 한단계 떨어졌다.

인구 100명당 우리나라의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37.5명으로 스위스(44.9), 네덜란드(40.4), 덴마크(40.0), 프랑스(37.6)의 뒤를 이어 5위다. 지난 조사에서는 4위였다.

외국에 비해 태블릿PC 사용률이 낮고 정부의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 등으로 무선 인터넷 수요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박성훈기자 zen@

액티브X 보안 결함 발견 500만원 포상

신고 건수 작년 수준

보안 취약 우려가 커지고 있는 액티브X를 쓰다가 취약점을 발견해 사이버보안당국에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액티브X는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이용자가 금융결제를 할때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액티브X 보안 취약 신고접수 건수는 29건으로 지난해 건수(31건)에 육박한다.

액티브X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은 악성코드를 사용자 몰래 키우거나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

해커가 특정 액티브X의 '보안 결함'을 발견해 이를 사용하는 웹페이지에 악성코드를 심으면 이 액티브X를 이미 설치해놓은 이용자는 해당 웹페이지를 방문할 때 악성코드에 자동 감염된다.

피해 유형은 금융·개인정보 탈취, 컴퓨터 시스템 파괴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가상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 결제에 활용하는 악성코드를 발견했다.

하지만 일반인이 악성코드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박성훈기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우수여행상품' 이 궁금하면?

당황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창에서~

여행정보센터

한국여행업협회가 엄선한
'우수여행상품'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여행 하세요!

여행정보센터 Tour Information Center	등록된 여행사인지 여행정보센터에서 **확인하고**
우수여행상품 Quality Certification	우수여행상품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하고**
여행불편처리센터 Tourist Complaint Center	여행중 불편사항은 여행불편처리센터에서 **해결하고**

우수여행상품 | 우수여행상품인증제도는 '건전여행' 정착과 여행상품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전국 여행사의 신청상품을 대상으로 전문평가위원회(소비자관련단체, 유관기관, 학계, 여행업체 등 30명)의 공정한 심사 · 평가를 통하여 선정되어집니다.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에서 우수여행상품을 찾아보세요.

주관

후원

KT는 31일까지 올레 인터넷과 스마트홈폰 HD mini를 동시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 생활 가전을 반값에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KT 제공

KT "홈폰 가입 가전 반값"

KT는 31일까지 올레 인터넷과 스마트홈폰 HD mini(이하 홈폰mini)를 동시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생활 가전을 반값에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레 인터넷과 홈폰mini를 동시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들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제습기 8종, 3D·LED TV 10종 등 삼성·LG전자의 인기 생활가전 제품을 최대 89%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또 KT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모든 고객에게 100% 당첨 경품을 통해 ▲1등 당첨자에 LG 무선 사운드바(LG제품 선택한 2명)와 삼성 기어핏(삼성제품 선택한 2명) ▲2등 당첨자에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10명) ▲3등 당첨자에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한다.

한편 홈폰mini는 지난해 출시된 스마트홈폰 HD의 후속 모델로, 4인치 화면의 갤럭시 단말과 디자인을 강화한 스피커독이다. 통화 기능뿐 아니라 라디오, 오디오, TV 등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가 제공되는 스마트 플레이어다.

한준석 KT 마케팅부문 GiGA사업본부 통화사업담당 상무는 "앞으로도 고객들이 스마트한 홈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승희기자 ssh814@

국토부 '연비 논란' 압박 공세

리콜·사후검증 권한 모두 가져
현대·쌍용차 보상방안 검토 중

국토교통부가 '연료소비율(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해 현대자동차와 쌍용차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리콜 권한에 이어 사후 연비 검증 권한까지 갖게 된 국토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자 그동안 연비 테스트 결과에 반발해온 현대차와 쌍용차도 내부적으로 소비자 보상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7월 말 현대차와 쌍용차에 공문을 보내 "연비 테스트 결과를 인정하고, 소비자 보상안 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7는 6월 26일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에서 표시연비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행 법규상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소유주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현대차와 쌍용차는 7월 25일까지 '연비 부적합 사실'을 알려야 했다.

그러나 현대차와 쌍용차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시험 결과가 다르고, 국토부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해 고지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거듭 압박한 것이다.

처음에 반발하던 해당 업체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말 정부의 연비 공동고시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산업부와 국토부가 각각 실시하던 사후 연비 검증은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국토부가 자동차 리콜에 이어 연비 사후 검증까지 자동차 관련 최대 규제를 담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서 무조건 버티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리콜 권한은 도로교통안전국(NHTSA), 연비 인증은 환경보호청(EPA)으로 권한이 이원화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리콜과 사후 연비 인증 모두 국토부가 관장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됐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특히 해당 자동차업체들이 행정소송 등의 움직임을 보이자 '소송까지 갈 경우 장기적으로 누가 더 손해겠느냐'는 식으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모 자동차업체의 디젤 신차 연비를 문제 삼아 신차 출시 시기가 늦춰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최근 방미 기간에 '앞으로 10년 내 소비자 최고 선호 브랜드로의 도약' 등을 과제로 제시한 만큼 국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쇄신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싼타페 구매자 등을 포함한 1700여명은 지난달 현대차 등 6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장 접수 당시 1인당 청구금액은 150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유주영기자 boa@metroseoul.co.kr

삼성전자, 스마트 사이니지 TV 출시 삼성전자가 중소형 자영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타입의 비즈니스 TV인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 TV'를 출시했다. 스마트 사이니지 TV는 기존 TV의 기능뿐만 아니라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정보와 광고 기능을 결합해 매장 내 비즈니스에 필요한 다양한 광고를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연합뉴스

삼성은 인도 델리로 봉사가고 현대차는 해남 사찰음식 먹고

재계를 대표하는 두 그룹 삼성과 현대차가 이색 나들이에 나섰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의 해외봉사단은 국제아동 후원단체인 플랜코리아와 함께 11일부터 나흘간 인도 델리의 서부지역인 우땀 나가르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봉사단은 임직원과 가족, 뉴델리 현지 직원 등 5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현지 학교의 노후 교실 개·보수, 화단 조성 등 환경미화와 난타공연 등 문화교류 활동을 펼친다.

현대차는 9~10월 두 차례에 걸쳐 명사와 떠나는 테마여행 행사 '더 브릴리언트 코리아 시즌6'을 진행한다.

사찰음식 전문가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연구소 원장)이 9월 27일부터 1박2일간 전라남도 해남 일대에서 함께 한다.

/박성훈기자 zen@

자동차사고 보험 분쟁 줄이려면?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 주에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다면 가벼운 부상으로 보일지라도 반드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현장에서 긴급조치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추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 잊지 말고 포함시키면 됩니다.

또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뒤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곧바로 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와 피해 규모 등을 알려서 사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간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지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이를 줄이려면 사고 목격자나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사고 발생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영상 등의 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놔야 합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항상 비치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협의서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기재하기 쉽게 구성한 표준서식을 말합니다.

누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현장에 관한 기록을 사고 상대방과 함께 협의서에 남겨두면 분쟁 여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했는지 밝히기 어려울 경우 보험회사가 가해자와 피해자간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가릴 때까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마냥 기다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의 기준을 알아두면 빠른 보상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보상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보험사가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의 정도가 분명하다면 과실이 많은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가 먼저 보상해야 합니다.

반면 과실 정도가 분명하지 않다면 피해자나 피해물을 최초로 친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가 먼저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사고차량에 함께 타고 있다가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먼저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양 측이 모두 자신의 차량에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각자 자신의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A씨 차량 손해는 A씨가 가입한 보험사가, B씨의 차량 손해는 B씨가 가입한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는 것입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주택시장 회복… 자신 리모델링 할 때

금융가 사람들

■ 양용화 외환은행 부동산팀장

"전세가율이 이미 오래 전에 50%를 넘어섰습니다. 50% 이하로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는 전세 세입자들이 상당한데도 지금까지 거래가 없었던 데는 그들이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반대로 상승 여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 경제팀의 출범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정부가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LTV·DTI 금융규제까지 완화키로 하는 등 강력한 회복 시그널을 수요자들에게 보냈기 때문이다. 당장 지금이 집을 사야 하는 타이밍인지 고민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양용화 외환은행 PB본부 부동산팀장(사진)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조언했다. 안락한 보금자리가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전세난과 반전세·월세 전환에 따른 위험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을 전제로,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유주택자도 갈아타기를 시도해볼 것을 권했다. 양용화 팀장은 "집을 팔기도 살기도 좋은 시장여건이 마련됐다"며 "기존 집을 매도하고 보다 좋은 주거환경을 가진 새로운 집으로 옮길 수 있는 적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1주택자가 투자목적으로 추가로 주택을 매입, 다주택자가 되는 것은 고민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팀장은 "집값이 오르더라도 거래가 활성화되는 수준이지 이전처럼 폭등 양상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투자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10% 이상 가격이 올라줘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강남 신규분양이나 재건축 등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비슷한 의미에서 현재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일부를 정리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를 추천했다. 그는 "임대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며 "강남권 등 유망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겨놓고 매수자가 움직일 때 나머지 주택은 처분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다른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양용화 팀장은 "실물경기, 금리상승 등의 걸림돌이 있지만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 중이고, 금리상승은 당장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만큼, 이번 기회에 본인의 능력 안에서 거래에 참여해보길" 권하면서도 "대출한도 완화와는 관계없이 LTV는 50%, DTI는 30~40%가 적당하다"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분리공시, 이통사 '웃고' 제조사 '울고'

'국민 알 권리', '제조사 영업기밀'에 우선돼야

issue&view

방통위 분리공시 도입

/이재영기자 ljy0403@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간 희비가 엇갈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6일에 이어 8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통사, 제조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휴대전화 지원금은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10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각각 나눠 공개하자는 것이 분리공시제의 내용이다.

그동안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를 두고 단말기 제조사는 강력 반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대 쟁점은 영업기밀 유출됨으로 인해 글로벌 사업에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단말기 유통법 제정 과정에서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제조사 장려금의 경우 국내와 해외에 차이가 있어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외사업을 하는 데 있어 심각한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학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말기 제조사의 경우 해외 판매비중이 높기 때문에 해외 수많은 이통사와 거래해야 하는데 이통사에 대한 장려금과 판매비 등이 해외통신사업자에 공개되면 이들도 동등 수준 이사의 지원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국내시장에 수출하는 애플 같은 해외 제조업자에게 판매량 등 영업기밀의 제출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상마찰이 불거질 수 있다"며 결국 국내시장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도 이같은 부분을 우려한 것이 사실이다. 법리적 문제로 엮일 수 있어 실무진에서도 법리상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한데다 제도의 효과도 미지수기 때문에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방통위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에 더 많은 점수를 매겼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사가 주장한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들은 새로운 휴대전화를 사고 보조금을 받는 대신 기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소비자들이 마치 자신이 피해를 본 것처럼 느낄 수 있고,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 이통사가 단말기에 제조사 장려금이 10만원, 이통사 보조금이 20만원 등 총 30만원의 휴대전화 지원금을 부여한다고 공시했다면 소비자는 A 이통사에 가입하면서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20만원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주간 분양

위례 호반베르디움 등 4개 단지

휴가철이지만 최근 분위기가 좋은 위례신도시, 경남 양산 등지에서 청약에 돌입, 열기는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전국적으로 청약접수 4곳, 당첨자 발표 4곳, 당첨자 계약 2곳, 견본주택 개관 2곳 등의 일정이 계획돼 있다.

호반건설은 13일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A2-8블록에서 '호반베르디움'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전용면적 98㎡, 전체 1137가구 규모다.

신사~위례선 위례중앙역을 이용할 수 있고, 위례 중심상업시설인 트랜짓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내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위치했다.

같은 날 EG건설은 경남 양산 물금택지지구 36블록 '양산신도시1차 이지더원'을 1순위 공급한다. 총 415가구, 전용면적 59㎡로 이뤄졌다.

지하철 2호선 부산대양산캠퍼스역과 증산역(예정), 물금IC, 남양산IC 등의 교통망을 갖췄다.

이어 14일 중흥건설이 광주 광산구 쌍암동 '중흥S-클래스 리버시티'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전용면적 76~84㎡, 총 406가구로 구성된다.

월계로, 광산IC, 제2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롯데마트, CGV, 첨단생활체육공원, 광주보훈병원 등이 가깝다.

이날 한화건설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일대 '정릉 꿈에그린'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2~109㎡, 전체 349가구 중 14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서울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과 길음역을 이용할 수 있고, 2016년 경전철 우이~신설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16일 케이디종합건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C-14-4블록 '미르웰플러스'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전용면적 19~34㎡ 총 244실 규모다.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5호선 발산역이 도보 5분 거리다.

/박선옥기자

세액공제 퇴직연금 규제 푼다

위험자산 투자한도 상향… 투자상품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가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완화되고,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도 높아진다.

세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은 늘었지만, 수익률이 갈수록 낮아져 은퇴 후 소득보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등은 퇴직연금 가입·운용·지급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에 걸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지난 6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긴 세액공제 확대가 퇴직연금 가입 촉진책으로서 가장 먼저 확정됐다.

확정급여형(DB형)과 별도로 개인연금계좌(IRP 계좌)를 만들어 추가 납입하거나 확정기여형(DC형)의 납입액을 늘리면 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48만원(400만원×12%)에 36만원(300만원×12%)의 혜택이 얹어지게 됐다.

세액공제 확대와 더불어 추진되는 내용이 수익률 제고 방안이다. 연 700만원 납입 기준으로 '12%(세액공제)+α(수익률)'에서 α값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는 연금 운용 수익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와도 무관치 않다. 매년 현금화되는 세액공제와 달리 수익률은 장래 연금 지급액을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원금보장 DB형 기준으로 연금 적립액이 많은 20개 은행·증권사·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올해 2분기 운용 수익률은 0.73~0.93%, 연율로 2.92~3.72%다.

지난해는 수익률이 3.58~4.12%, 2011~2013 평균 수익률은 4.10~4.88%였다. 수익률이 갈수록 낮아진 것이다. 원금 비보장형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저금리 추세로 수익률이 3%에 불과한 현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 때 연금소득세(3~5%)를 떼고 원금만 돌려받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퇴직연금 도입 초기에는 시장 선점을 위해 역마진을 감수하며 높은 수익률을 제시했지만, 앞으로는 수익률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익률을 끌어올리도록 연금 운용 단계에서 더 공격적인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40%로 묶인 DC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 한도를 DB형과 비슷한 60~70%로 상향 조정하는 게 유력시된다.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해외투자적격채권 등으로 상품을 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 규제도 투자 제외 대상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국내 퇴직연금의 92.6%는 DB형에 쏠려 있다. 미국이나 호주처럼 개인이 투자 책임을 지는 DC형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DC형의 규제를 풀어 '저위험 저수익' 투자 위주인 퇴직연금이 '중위험 중수익'에도 투자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투자 규제 완화와 함께 선진국처럼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생과일 찹쌀떡 드셔보세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10일부터 생과일이 들어간 찹쌀떡 전문점 '모찌 이야기'를 열었다. 딸기, 복숭아, 진지향 찹쌀떡은 개당 2300원, 파인애플 키위 찹쌀떡은 개당 2200원이다. /연합뉴스

책, NFC와 만나면 더 똑똑…

기기 갖다대면 오디오북 변신

책이 스마트기기와 만나 더 똑똑해진다.

국내 유명 출판사 25곳이 종이책과 디지털을 연계하는 융·복합 서비스 '더책'을 상용화한다.

책 표지에 QR코드와 같은 디지털기기가 인식할 수 있는 기호만 있으면 '보는 책'이 '듣는 책'으로 변한다.

창비 계열사인 창비미디어가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창비를 비롯해 길벗어린이, 김영사, 문학과지성사, 사계절, 현암사, 풀빛 등 25개 출판사가 콘텐츠를 제공한다.

독자가 책에 있는 NFC태그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면 오디오북이나 기타 다양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번거로운 인증절차나 저장장치가 필요없다. 스마트폰과 책만 있으면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아이폰 버전은 추후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창비는 '더책' 상용화를 맞아 '두근두근 내인생' '엄마를 부탁해' '완득이' 등 인기 도서 3종을 오디오북 무료제공 특별한정판으로 선보였다. /박성훈기자 zen@

웰빙형 타운하우스 '원당 사랑채'

3호선 원당역 인근… 3.3㎡당 800만원대 분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908-1번지 일대 웰빙형 타운하우스인 '원당 사랑채' 12세대가 선시공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계약면적 159~160㎡, 대지지분 231~264㎡ 규모다. 세대별로 1층 거실·주방, 2층 방 2개·화장실, 3층 방2개·화장실 구조로 이뤄졌으며, 전용률은 80% 선이다.

외곽순환고속도로와 34번국도를 이용할 수 있고, 3호선 원당역이 차량으로 5분 거리다. 반경 1.5km 이내 원당초교, 성사중·고교가 위치했다.

단지에는 전 세대 지열난방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지중 130m 이상 150m 이하에 열교환기(파이프)를 삽입, 사계절 내내 12~18℃를 유지하는 땅 속 온도를 열원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난방비 걱정을 덜 수 있다.

개별텃밭과 옥상정원이 제공되며, 3.3㎡당 분양가는 800만원대다. 본보기 주택은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중순 이후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문의 031-975-7901

한미마이크로닉스 미들타워 예판

컴퓨터주변기기와 올인원PC 전문기업인 한미마이크로닉스는 진화한 성능으로 새롭게 태어난 Cygnus Plus+ usb3.0 미들타워의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정식 판매가격보다 35%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번 예약판매에는 120mm쿨러를 추가 증정, 상단부 또는 측면부에 위치한 쿨러 홀에 장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마이크로닉스 Cygnus Plus+ usb3.0은 업그레이드 된 사이드 패널과 내부 구성을 완전히 바꾸어 더욱 편한 조립성과 통풍성을 극대화했다. /박성훈기자

계속 떨어지는 기름값 10일 서울 광진구 한 주유소 앞 안내판에 유가가 게시되어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주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4원 떨어진 리터당 1850.0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1억 넘는' TV 국내서도 꽤 팔린다

삼성 110인치 평면 UHD TV 등 호응

삼성전자가 1억2000만원에 출시한 105인치 커브드 UHD(초고해상도) TV가 북미·중동 등 해외 프리미엄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팔렸다.

10일 TV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4월 22일부터 디지털프라자 서울 강남본점 등에 105인치 커브드 UHD TV를 내놓고 예약판매를 시작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중동과 북미에는 꽤 수요가 있지만 워낙 고가 제품이라 국내에서는 소량 주문 형태로 판매한다"며 "그동안 한자릿수로 팔린 걸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이보다 더 큰 110인치 평면 UHD TV를 1억6000만원으로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다. 양산 1호 제품은 아랍에미리트(UAE) 왕족에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VVIP들로부터 선주문 10대를 받기도 했다. 가로 2.6m, 세로 1.8m로 킹사이즈 침대보다 큰 TV다.

삼성전자는 이달 1일부터 78인치 가변형(벤더블) UHD TV를 예약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2600만원으로 정해졌다. 100인치 이하 모델 중에는 가장 비싼 축에 든다. 서울지역 두 군데 매장에 전시됐는데 예약판매 문의가 꽤 들어온다고 삼성전자 관계자는 전했다.

가변형 TV는 양쪽 측면의 전기적 장치로 화면을 밀어서 최적 곡률인 4200R까지 화면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있는 제품이다.

LG전자도 지난달 31일부터 베스트샵 강남본점 등 4곳에서 105인치 곡면 울트라HD TV를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삼성전자 동급 모델과 같은 1억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유주영기자 boa@

‘해치백의 교과서’… 고성능은 추종 불허

■ 폭스바겐 골프 GTI

최대토크 35.7kg·m으로 상승… 복합연비도 11.5km/ℓ 준수

▲한 줄 평가: 존재감 뚜렷한 동급 최고의 해치백. ▲평점: ★★★★☆(평점은 별 다섯 개 만점. ☆는 1/2)

고성능을 갈망하는 운전자는 차종이나 가격대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고성능 차는 일반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탈 수 있는 차는 아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차가 바로 고성능 소형 해치백이고, 이 분야의 최강자는 폭스바겐 골프 GTI다. 1976년 탄생해 독일 아우토반을 주름 잡은 이 차는 벌써 7세대로 진화했다. 국내에는 지난 5월 부산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됐다.

골프는 ‘해치백의 교과서’로 불릴 만큼 흠 잡을 데 없는 비율을 갖췄다. 새로운 세대로 진화하면서 디테일의 변화를 주고 있지만, 워낙 기본 설계가 잘 된 차여서 혁신적인 변화는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 GTI는 기존 골프보다 15mm 낮은 스포츠 서스펜션을 적용하는 한편, 벌집 모양 라디에이터 그릴과 스포티한 범퍼로 인상을 새롭게 했다. 붉은색 브레이크 캘리퍼와 18인치 오스틴 휠도 골프 GTI의 독특함을 빛내주는 요소다.

실내에서는 D자 모양의 스티어링 휠과 레드 스티치의 가죽 시트가 돋보인다.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의 스티어링 휠과 경주차를 연상케 하는 버킷 시트는 질주본능을 꿈틀거리게 만든다.

7세대 GTI는 더욱 강력한 심장을 얻었다. 최고출력은 6세대 GTI와 같은 211마력이지만, 최대토크는 35.7kg·m로 높아졌다. 변속기는 6세대와 마찬가지로 6단 DSG를 쓴다. 높아진 토크는 초기 가속부터 진가를 발휘한다.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앞바퀴가 헛돌 정도로 강력한 파워가 전해진다. DSG는 더욱 정밀해져서 토크를 빠짐없이 바퀴로 전달하고, 변속 도중에 울컥거리는 현상도 줄어들었다. 정지에서 시속 100km 가속에 걸리는 시간은 6.8초로, 6세대보다 0.1초 빨라졌다.

7세대 GTI의 가장 큰 특징은 에코(Eco), 스포츠(Sport), 노멀(Normal), 인디비주얼(Individual)등의 주행모드를 지원하는 드라이빙 프로파일 셀렉션(Driving Profile Selection)이다. 신형 골프의 모든 모델에 적용된 이 기능은 주행특성을 운전자의 취향에 변화시킬 수 있는 장비로, GTI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한다. 특히 엔진과 변속기, 스티어링 휠의 반응을 더욱 스포티하게 세팅하는 스포츠 모드는 동급에서 가장 경쾌한 핸들링을 선사한다. 게다가 XDS+(전자식 디퍼런셜 록)까지 더해져 곡선주로에서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주행을 보여준다. 서스펜션은 6세대보다 살짝 부드러워졌다.

국내에서 골프 GTI의 라이벌은 꼽기 힘들다. BMW 1시리즈와 메르세데스 벤츠 A클래스 모두 디젤 모델만 갖추고 있기 때문. 폭스바겐은 184마력의 출력과 38.7kg·m의 토크를 갖춘 골프 GTD로 1시리즈(184마력, 38.8kg·m)에 맞선다. 벤츠 A클래스는 136마력, 30.6kg·m의 A200 CDI 한 가지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 모델이 아니다.

GTI의 복합연비는 11.5km/ℓ인데, 시가지를 주로 달린 이번 시승에서는 8.0km/ℓ의 연비를 기록했다. GTI를 고를 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아마도 연비와 성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일 것이다.

디젤 모델이 득세하는 국내 수입차시장에서 골프 GTI의 존재는 단연 돋보인다. 4310만원의 가격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만, 값 대비 성능을 감안하면 최고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하이카 온라인 車보험 만족도 1위

긴급출동은 현대해상이 최고

하이카다이렉트가 온라인 자동차보험 가운데 만족도가 가장 컸다.

긴급 출동 서비스의 경우 현대해상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가입 성인 108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하이카다이렉트가 종합 만족도 5점 만점 중 3.63점으로 가장 높았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삼성화재(3.61점), 동부화재(3.60점), 메리츠화재(3.43점), 악사다이렉트(3.40점), LIG손해보험(3.29점) 순이었다.

전문성에는 동부화재(3.68점), 고객지향성은 삼성화재(3.62점), 가격은 하이카다이렉트(3.62점)가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오프라인 자동차보험 중에서는 동부화재(3.64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가입 채널별로는 오프라인 보험(3.56점)의 만족도가 온라인 보험(3.53점)보다 높았다. /박성훈기자 zen@

<국산차 수입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YF쏘나타	1,330	1,410	1,540	1,680	1,770
기아	K5	–	1,440	1,460	1,770	1,810
쉐보레	말리부	–	–	1,840	1,940	2,150
르노삼성	SM5	–	–	1,400	1,670	2,030
BMW	3시리즈	2,540	2,690	2,840	3,630	3,880
벤츠	C클래스	2,770	3,000	3,060	3,270	4,070
아우디	뉴A4	2,350	2,520	2,870	3,210	3,890
폭스바겐	뉴파사트	2,010	2,190	2,390	2,451	2,960
캐딜락	올뉴CTS	2,100	2,590	2,700	2,880	–
볼보	S60	–	–	2,580	3,110	3,250
렉서스	is250	2,220	2,290	3,110	–	–

정보제공 :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수입차업계, 작년 대비 실적 상승률은?

올해 7월까지 수입차업계 판매가 지난해보다 25.6% 포인트가 증가한 가운데, 각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최근 한국수입차업계가 낸 자료에 따르면 성장률을 기준으로 보면 피아트(372.6% 포인트↑)와 닛산(218.7% 포인트↑)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그 뒤를 이어 벤틀리(134.7% 포인트↑)와 볼보(52.6% 포인트↑)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브랜드는 혼다(-34.1%포인트↓)가 꼽혔다.

올해 큰 폭의 판매 증가를 보인 피아트 친퀘첸토.

판매대수로 보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5766대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아우디가 5221대, 폭스바겐이 4964대, BMW가 3854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2000cc 이하 저배기량과 4000cc 이상 고배기량 차종, 디젤 차종과 하이브리드 차종이 많이 판매된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2000cc 이하 배기량은 지난해 1~7월 동안 전체 판매의 52.5%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점유율이 55%로 올라갔다. 놀라운 것은 4000cc 이상 차종이 61.8% 포인트나 올라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는 수입차시장의 소비가 양극화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연료별로는 가솔린이 0.9% 포인트 감소한 반면, 디젤이 42.1% 포인트 증가했고 하이브리드는 13.3% 포인트 증가했다. 디젤 모델의 점유율은 68.2%로, 국내에서 팔리는 수입차 10대 중 7대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수입차 판매는 7월까지 8만9440대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11만2375대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해 연말 2014년 수입차 신규 등록을 17만4000대로 전망한 바 있으나, 올해 판매 추이를 볼 때 20만대 가까운 판매가 예상되고 있다. /임의택기자

조세체계, 소득재분배기능 살려야 한다

청론탁설

유 병 필
<언론인>

우리나라는 지금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극화 문제가 초미의 과제가 된지 오래다. 그러나 이러한 난제가 당장 경기회복의 명제 앞에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올인하다시피 경제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나 양극화 해소 방안은 조금도 진전된 것이 없다.

특히 세제개편을 통해 '부자증세'를 내세웠지만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비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액은 오히려 3분의1로 줄어들었다. 작년에 정부는 올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액이 2조 9700억 원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올해 세 부담 증가액은 9680억 원으로 가벼워지게 됐다. 결국 중산층서민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갖가지 세액공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세제운영으로 우리나라는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소득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OECD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세전 빈곤율은 0.173%로 OECD 27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다. 그러나 세후 빈곤율은 0.149%로 이스라엘, 칠레, 스페인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세금만 뗐을 뿐인데 OECD회원국에서 가난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가 돼 버린 것이다. 빈곤율이란 중위소득의 절반도 못 버는 빈곤층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프랑스의 경우 세전 빈곤율(0.347%)과 세후 빈곤율(0.079%) 차이가 0.268%포인트로 OECD 회원국가운데 가장 크다. 그만큼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됐다는 뜻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비해 11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부과하는 부가세로 소득재분배기능의 역진성이 강하다. 더욱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돼 어느새 일본이나 프랑스보다도 불평등한 나라가 됐다.

최근 "21세기 자본론'으로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45.51%로 프랑스(30.69%)는 물론 일본(40.50%)에 비해 높고 미국(48.16%)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가 전체의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당장의 경제 살리기가 매우 중요하지만 조세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으로 소득재분배기능을 살려야 한다.

포토프리즘 '물놀이는 즐거워'

지난 9일 경기도 부천의 한 야외수영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30도를 웃도던 날씨에 더위를 이기기 위해 수영장을 찾은 어린이들은 물폭탄이 떨어지는 놀이기구 앞에서 기대감과 긴장감을 함께 품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손진영기자 son@

최경환호 순항할까

뉴스룸에서

김 태 균
<경제·산업부장>

최경환 새 경제팀의 광폭행보가 대단하다. 지난 7월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한데 이어, 최근 이를 뒷받침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어 국회에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도 2기 내각의 첫번째 국정과제로 '경제회복'을 언급할 정도로 힘을 싣고 있다.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방향은 재정과 세제, 금융 등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저성장의 늪에 빠져드는 한국 경제를 회생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심각한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절박함이 깔려있다.

특히 가계와 자영업자의 몰락,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심각한 내수부진 속에서 홀로 선전하고 있는 수출마저 꺾이면 성장과 물가,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 모두가 위축되는 '축소균형'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최경환 경제팀의 상황 인식이다.

이를 볼때 하반기 최경환 경제팀의 과감한 재정·통화 정책이 거침없이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도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증시가 3년 만에 박스권을 탈출하고 실물경제에 호전 기미가 감지되는 등 청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과 금융시장은 벌써부터 우리 경제가 회복구도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보내고 있다.

실제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이 모습을 드러낸 지난 6월 실물경제에서 강한 반등 흐름이 감지됐다.

통계청의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2.1% 늘어 2011년 3월(4.1%) 이후 3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

광공업생산은 2.9% 늘어 2009년 9월의 3.7% 이후 5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종합지수를 보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월에 0.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4월(-0.2p)과 5월(-0.4p)에 이어 3개월째 마이너스지만, 낙폭은 줄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로 전월의 -0.1포인트에서 상승 반전했다.

통상 6개월 정도 경제를 선행해 반영하는 증시를 보면 새 경제팀 출범을 기점으로 기대감이 상당하다. 코스피는 지난 7월 29일 2060선까지 돌파한 이후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너도 K냐, 나도 K다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율곡 이이 선생이 네 살 때 집으로 우락부락하게 생긴 도사가 탁발을 왔다. 하인은 아침부터 재수 없다며 소 똥 한 바가지를 도사에게 퍼부었고, 신사임당은 하인의 행동을 사과하며 쌀을 건넸다. 도사는 돌아서던 발길을 멈추고 '총명한 아이에게 호환이 씌었으니 나쁜 일을 피하려면 밤나무를 천 그루 심으라'고 말했다.

6년 후 도사로 변신했던 호랑이는 율곡 이이를 데려가겠노라며 나타났다. 신사임당은 천 그루의 밤나무를 심었으니 살려달라고 했다. 둘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셌는데 두 그루가 모자랐다. 그때 옆에 서있던 나무가 '나도 밤나무입니다'라고 말한 후에 옆의 나무를 향하며 '야, 너도 밤나무잖아'라고 했다. 덕분에 율곡은 호환을 피했고, 두 그루의 나무는 그 이후 '너도밤나무' '나도밤나무'가 됐다.

사실 너도밤나무와 나도밤나무는 사뭇 다르다. 너도밤나무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도 없고 오직 울릉도 성인봉의 높은 곳에만 자라는 특별한 나무다. 비록 서생지가 비좁지만 세계적으로는 널리 자라고 쓰임새가 많은 유용한 나무다. 작은 도토리를 맺지만 잎이나 열매의 특징으로 보아 밤나무와 비슷한 구석이 많다. 이 나무를 처음 본 사람이라면 '너도 밤나무냐?'고 묻고도 남을 정도다. 반면 나도밤나무는 콩알만 한 새빨간 열매가 열리는 것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라는 것도 다르다. 언뜻 보면 생김새가 밤나무가 닮기는 했으나 전혀 다른 나무라 할 수 있다.

앞의 전설은 바로 나도밤나무의 전설이다. 이런 이름은 대개 학자들에 의해 붙여지는데 너도바람꽃, 나도바람꽃처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너도밤나무든 나도밤나무든 밤나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호박에 녹색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 아니다.

최근 한류 사업도 다르지 않은 듯하다. K팝, K드라마를 앞세워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K를 붙여 팔아 왔다. 일본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비자가 한국보다 경제력이 낮은 국가의 국민이다. 그렇다 보니 더 싸게, 더 많이 팔기 위해서 K를 붙이는 것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준에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제 한류를 경험했던 외국인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다. 한국 기업이나 사업가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너도 K냐'고 되묻는다. 심지어 '나도 K다'라며 사업을 펼친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씨를 뿌린 자 누구냐, 쓴 열매를 거두는 자 누구일까.

/인터패션플래닝(www.ifp.co.kr) 대표

제2롯데월드 '싱크홀' 논란

기자수첩

조 현 정
<정치사회부 기자>

최근 서울 잠실 일대에서 지반 침하 현상 이른바 '싱크홀'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직접적 원인이 도로 바로 아래를 지나는 지하철 9호선 공사나 하수도 때문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지나치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로 제2롯데월드 공사가 거론됐다. 123층짜리 건물을 짓느라 지하 37m까지 땅을 파면서 이 곳으로 주변 지하수가 유입돼 지반이 침하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석촌호수로 유입되는 지하수 유량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도 사실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본질적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제2롯데월드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추석 전 조기 개장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결정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싱크홀과 제2롯데월드의 관련성에 대해 명쾌한 원인 규명을 밝히지 못해 더욱 불안하다.

롯데 측은 제2롯데월드는 완공되면 세계에서는 6번째, 국내에서는 최고층 건물이 된다며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홍보하기에 바쁘다. 홍보에 앞서 철저한 안전 조치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대형 참사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징후를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습기·손·에어컨·주방도구>

'W·H·A·T' 주의하면 여름철 세균 걱정 끝

식중독 등 감염 질환 예방위해 관리 필수

고온다습한 날씨로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면서 각종 감염 질환 발생이 많아지고 있다. 감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균 감염 매개체인 ▲Wet(습기) ▲Hands(손) ▲Air-conditioned(에어컨) ▲Tools(주방도구) 등 'WHAT'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실내 습도 조절하고 손씻기 생활화해야

여름철에는 실내 습도가 높아지기 마련이다. 특히 비가 내리면 실내에서 빨래를 건조시키는데 이럴 경우 실내 습도는 급격히 높아진다. 실내 습도가 적정 수준을 넘어가면 세균이 증식하기 쉽고 공기 중 곰팡이 포자가 확연히 증가하게 되며 이는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습도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실내 제습기를 활용해 적정 습도를 유지하고 빨래는 건조기를 활용해 말려야 한다. 또 실내온도가 24도 이상인 여름철 적정 습도는 40% 정도다.

이와 함께 손은 감기와 식중독,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무수한 세균과 바이러스가 옮겨 다니는 통로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손에 있는 세균을 완벽히 관리해야 한다. 비누를 이용해 손을 씻어야 하며 세균을 효과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2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좋다. 아울러 손을 씻을 때는 손바닥·손가락·손톱 등을 잘 문지르는 것이 중요하고 항균 비누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에어컨도 세균 번식이 쉬운 장소다.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레지오넬라균이 주로 번식을 하며 서울시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 건물 4곳 중 1곳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바 있다. 레지오넬라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응결수 물받이 배관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하고 물받이 필터는 락스 등을 이용해 주 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식중독이나 장염과 같이 여름철 발생이 많은 질환은 음식물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음식물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주방도구가 세균 감염의 원인이 되며 행주와 도마가 대표적인 예다.

주방 곳곳을 청소하게 되는 행주는 끓는 물에 소독하고 만약 삶아서 관리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행주를 물에 담근 상태로 8분 이상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된다. 또 조리 전후의 세균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위생관리의 습관화를 위해 싱크대에 손 세정제 등을 비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유방암 비수술 치료 주목

형태 보존 가능, '혈관 내 치료'

여성에게 두 번째로 많은 유방암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유방암 조기 발견을 통한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주목받고 있다.

사실 유방암은 조기 자각 증상이 없다. 이런 이유로 유방암 환자의 약 20%는 정기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한다.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할 경우 생존율은 90%에 가깝고 이럴 경우에는 유방 보존도 가능하다.

특히 암을 조기에 발견했을 때는 암의 크기와 위치 등에 따라 비수술적인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

치료 때 고통을 줄이고 유방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법은 혈관 내 치료법이다. 이 방법은 혈관 카테터를 동맥 내에 삽입해 항암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암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신생 혈관에 약물을 투입해 불필요한 혈류를 줄이면서 종양이 커지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빼앗아 종양이 줄어들게 하는 원리다. 이 방법은 통증과 합병증이 없으며 정상 조직에 대한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김태희 청담산부인과·외과 원장은 "많은 여성들이 유방에서 종양이 발견되면 유방을 잘라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종양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법도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의 후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비수술적인 방법인 혈관 내 치료는 유방암뿐만 아니라 전이암·간암·췌장암 등의 악성 종양과 거대 자궁근종과 같은 질환 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재용기자

매일 맥주 한 잔, 알코올중독 부른다!

내성이나 금단 증상 생기면 전문의 상담받아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시원한 맥주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작은 양이더라도 술을 매일 마시면 알코올중독(알코올의존)으로 발전할 수 있다.

알코올은 우리 두뇌를 길들여서 한 잔을 마시면 다음 잔을 부르고, 조금 마시면 더 많이 마시도록 만든다. 알코올이 '대뇌 보상회로'라고 부르는 쾌락중추를 직접 자극해 음주 행동이 학습되기 때문이다.

물론 술을 마신다고 해서 모두 알코올중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술을 마셔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알코올로 인해 신체적 의존이 생겼을 때다.

즉 일정한 음주량으로 만족도를 느끼지 못해 계속해서 양을 늘리게 되는 내성과 술을 줄이거나 끊었을 때 식은땀이 나고 손떨림이나 불안 등의 불편이 나타나는 금단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직장생활이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심한 경우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우울증을 앓기도 한다.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를 찾아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알코올중독과 의존을 치료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의존성을 줄이거나 극복하고 단주 동기를 높이는 데 있다.

필요한 경우 알코올에 대한 갈망과 습관성을 줄이기 위한 항갈망제, 음주억제제 등이 도움이 되며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의 정신 질환이 공존할 때는 정신 질환부터 치료해야 한다.

이수정 부천성모병원 알코올의존치료센터장은 "알코올의존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적합한 치료를 실시할 수 있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며 "혼자서 끊을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며 알코올의존증을 키우기보다는 하루라도 일찍 치료센터 등을 방문해 상담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재용기자

빨라진 첫 경험, 청소년 性 건강관리 중요

첫 성경험 평균 12.8세로 하향… 관련 질환 위험 커져

국내 청소년들의 성관계 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05년 13.6세로 조사된 이후 8년간 13.6~13.9세 사이를 오르내리다 지난해 13세 아래로 내려갔다. 이에 청소년기 성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3년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 중 성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12.8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12.7세, 여학생은 13.0세다. 특히 여학생들의 초경 시작 연령은 평균 11.7세로 초경 후 2년 이내에 첫 경험을 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른 성경험으로 관련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서 성경험이 있는 10대 여학생 10명 중 1명 이상(11.1%)이 성 관련 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른 성경험으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은 임질과 매독, 그리고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다. 임질과 매독은 발견 후 치료가 가능하지만 감염이 돼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인유두종바이러스는 장기적으로 자궁경부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인유두종바이러스는 주로 성 접촉으로 감염되는데 콘돔 사용으로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어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청소년기에 자궁경부암에 걸리면 출산뿐만 아니라 성생활, 치료 이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각종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콘돔 사용 등 성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하며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접종을 통해 인유두종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박수경 애플산부인과 원장은 "이른 나이의 성경험은 다수의 파트너와의 성생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각종 성 관련 질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청소년기부터 성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보여주고 싶은 '홈 오브제' 가전 인기

숨겨두고 쓰는 제품에서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각광

가전제품들이 최근 디자인으로 중무장하면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인테리어 제품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전에는 가전제품을 다용도실 등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사용했지만 뛰어난 디자인은 물론 효율적인 공간 활용까지 가능한 '홈 오브제' 가전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제품들은 집 안 인테리어에 포인트를 주는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손에 닿는 곳에 놓고 필요할 때 사용하기도 더 편리하다. 침구살균청소기 전문 기업 레이캅코리아에서 선보인 '레이캅 RS'는 미세하고 은은한 펄 입자로 시원한 느낌을 주는 모던한 디자인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수납대에 청소기 본체를 넣어 보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침대 옆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 빼 쓸 수 있어 매일 청소하기 편하고 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다.

다이슨의 '다이슨 쿨'은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날개 없는 선풍기'(사진 오른쪽)로 잘 알려져 있다. 고속 회전 날개를 없애 디자인적인 요소를 살리는 동시에 아이들의 손이 닿아도 다칠 우려를 줄였다. 또 청소하기 힘든 안전망과 날개가 없어 헝겊으로 먼지를 닦아내기만 하면 되므로 위생 관리도 손쉽다.

캐리어에어컨의 '립스틱플러스'는 에어컨을 주로 가족들이 함께하는 거실에 설치한다는 점을 고려해 디자인에 더욱 신경 쓴 제품이다. 에어컨 중간 부분에 띠를 둘러 립스틱 모양을 하고 있으며 가로 340㎜의 슬림한 디자인이라 기존 에어컨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간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개인 취향과 거실 인테리어 콘셉트에 따라 퍼플·라벤더·로즈·펄 화이트 등 다양한 색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최근 교류가 많은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인테리어적 요소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제품은 바로 주방가전이다. 일렉트로룩스가 지난 5월 출시한 주방소형가전 '크레이티브 컬렉션'(왼쪽)은 블렌더·커피메이커·토스터·무선주전자 4종 모두 메탈 디자인을 채택했다. 북유럽 스타일의 디자인과 시원하고 세련된 느낌의 메탈 소재를 잘 접목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준다. 특히 각 제품의 소재와 비율, 마감에 동일한 느낌을 부여해 제품 간 유기성을 표현하고 일렉트로룩스의 브랜드를 디자인적으로 강조했다.

매일 사용하는 헤어 기기도 화장대나 화장실에 그냥 올려두면 지저분해 보여 화장대 서랍 등에 넣어두고 쓰기 마련이다. JMW의 스탠드형 미니 헤어드라이어 'DS2031C'는 유려한 곡선의 디자인으로 감각적인 느낌을 살렸고 하이글로시 유광 코팅기법을 적용해 인테리어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다. 작은 사이즈로 사용과 보관도 편리하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추석 선물, 구매단가 전년比 30%↑

1976년 이후 38년만에 맞는 이른 추석으로 유통업계가 추석 선물세트 예약 판매를 앞당긴 가운데 소비자들이 명절에 임박해 가격이 오를것으로 예상되는 과일류 등을 미리 구매하는 경향이 커지고 평균 구매 단가도 전년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표 선물세트로 인기를 모았던 가공식품보다는 건강식품의 예약 판매가 급증했다.

롯데마트가 지난달 18일부터 7일까지 3주 동안 자사의 추석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 현황을 집계한 결과, 올해 선물세트 평균 구매 단가는 3만2125원으로 작년 전체 예약판매 기간 중 평균 구매 단가인 2만4726원에 비해 29.9% 상승했다.

저가의 가공(조미·인스턴트) 선물세트 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건강식품 선물세트가 많이 판매됐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식품 선물세트 중 홍삼 선물세트의 매출 비중은 작년 20% 가량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80% 수준까지 늘어났다.

한편 추석 당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전(올해 8월 1일~7일, 전년 8월 12일~18일) 예약판매 실적은 지난해보다 두 배(98.1%) 가량 늘었다.

/정영일기자

"대한민국은 지금 '빙수' 열풍"

컵·테이크아웃·뷔페 등 이색 제품 선봬

계속되는 더위로 빙수가 인기다.

커피가 아닌 '빙수'를 내세운 디저트카페에서부터 미숫가루·치즈 등 색다른 재료를 사용한 이색빙수 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또 1인영 컵빙수부터 테이크아웃 빙수가 출시되는가 하면 뷔페 레스토랑의 한 코너로 당당히 자리잡았다.

로스팅 팩토리 '더카페'에선 기존 빙수를 테이크 아웃이 가능한 컵 형태로도 선보였다.

뷔페 샐러드바에도 빙수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뷔페 레스토랑 '로운 샤브샤브'의 경우 한국 전통 재료들로 만들어진 빙수의 인기에 발맞춘 '로운 오곡빙수' 코너를 선보였다.

한국인의 입맛에 제격인 각종 견과류와 단호박 큐브, 흑임자 아이스크림 등으로 구성된 빙수를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해 재미와 건강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서 빙수를 선택해 즐길 수 있는 곳도 생겨났다.

평촌 NC백화점 지하 1층에 위치한 푸드폴리탄에서는 프랑스식 초콜릿&마카롱 카페 '모뉴망'는 국내산 팥을 전통 방식으로 손수 끓여 만드는 '단빙각', 빙수의 메카라 불리는 대만 현지의 맛을 그대로 재현한 '대만빙수'에서 세계 베스트 빙수 10종을 모은 '빙수대전'을 운영하고 있다.

브랜드의 특성에 따라 유럽풍의 고급 빙수, 대만의 시원한 열대과일 빙수, 전통 팥 빙수까지 각양 각색의 빙수들을 골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

/정영일기자 prms@

엔제리너스커피, '미니빙수 3종' 출시

혼자 즐길 수 있는 사이즈와 가격 줄인 눈꽃빙수도

최상급 원두 본연의 맛과 풍부한 향의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엔제리너스커피(대표 노일식)가 1인 고객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의 미니빙수 3종류를 선보였다.

신제품 '미니빙수'는 혼자서 즐기기 좋은 1인 사이즈 메뉴로 눈꽃빙수에 신선한 토핑을 더한 '밀키 팥빙수' '밀키 망고 빙수' '밀키 콩 빙수' 등이다.

'밀키 팥빙수'는 눈꽃얼음에 팥과 떡을 올려 심플하게 즐길 수 있다. '밀키 망고 빙수'는 애플망고 시럽과 망고과육을 더해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밀키 콩 빙수'는 눈꽃얼음에 공고물을 풍부하게 올려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눈꽃얼음을 동시에 맛볼 수 있다. 가격은 각 4500원.

엔제리너스커피 관계자는 "더운 여름철 혼자 매장을 방문한 고객도 시원하게 빙수를 즐길 수 있도록 1인 빙수 메뉴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층을 위해 합리적이고 실속있는 제품을 선보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강강술래, '추석선물 예약 할인전'… 최대 50%↓

20일까지 주문시 10% 추가 할인 혜택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오는 20일까지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www.sullai.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추석 선물 예약 할인전'을 벌인다. 불황으로 알뜰한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품격과 정성을 담은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며, 예약 판매기간 구매 시 10% 추가 할인혜택을 준다.

행사 기간 한우불고기1호(1kg)는 4만5000원, 한우불고기2호(1.5kg) 6만3000원, 강강양념1호(16대) 8만1000원, 강강양념2호(24대)는 11만7000원에 판매한다. 또 강강실속2호(강강양념8대+한우불고기1kg)는 8만1000원, 한우실속2호(한우양념2대+한우불고기1kg)는 11만7000원, 한우찜갈비세트1호(3.2kg·냉동)는 16만2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한우정성1호(등심+국거리+불고기·각0.7kg·13만5000원)와 한우정성2호(등심1.4kg+국거리0.7kg·17만1000원), 한우명품1호(등심1.4kg+안심0.7kg·21만6000원) 등 한우프리미엄세트도 초특가로 선보인다. 100% 한우로 우려내 맛이 진하고 구수하며 상온보관이 가능한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800㎖·5팩·15인분)는 3만4920원, 소용량세트(350㎖·5팩·10인분)는 2만250원에 제공한다.

특히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열전도율이 낮아 보온·보냉이 우수한 두꺼운 고급원단을 사용했다. 또 내용물이 흐트러지지 않게 보관 배송이 가능한 X자형 손잡이를 사용해 선물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정혜인기자

“제값 주고 사긴 아깝지~”

패션업계, 잇딴 할인 행사
옷·신발 파격가 구입 기회

패션브랜드들이 본격 휴가철을 맞아 잇따라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다. 바캉스 룩에 유용한 여름 옷과 신발을 파격가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매 시즌 유쾌하고 위트 있는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 투플라시보(2PLACEBO)는 이달 말까지 2014 봄·여름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이 기간 바이크 휠 맨투맨 티셔츠(정가 6만8000원)는 4만7600원, 바이크 스마일 티셔츠(정가 4만5000원)는 3만6000원, 배기 팬츠(정가 9만8000원)는 7만8400원 등 인기 제품을 최대 30% 저렴하게 선보인다.

에잇세컨즈는 17일까지 전국 27개 에잇세컨즈 매장에서 '럭키 위크' 행사를 연다.

행사 기간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가방·벨트·비니·스카프 등 액세서리 5개 묶음 또는 팬츠·셔츠·스커트 등을 8800원에 판매한다. 온라인에서는 카카오톡에서 에잇세컨즈와 친구를 맺으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슈즈 멀티 스토어 슈마커는 31일까지 여름 신발을 30~70% 할인하는 '끝내주는 쇼킹 특가'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기간 영국 캐주얼 아웃도어 브랜드 '쿠쉬'와 슈마커 자사 브랜드 '허니에이프릴' 등을 최대 70% 깎아주고, 나이키·아디다스·푸마 등 유명 브랜드 여름 상품에도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슈즈 멀티숍 ABC마트은 올여름 마지막 세일인 '파이널 샌들 세일' 행사를 벌인다. 17일까지 신상품을 포함한 여름 샌들 품목을 최대 70% 할인 판매하며, 슬라이드·플립플랍 제품은 9900원, 여성 샌들은 1만원, 데크슈즈·아쿠아슈즈는 1만9000원부터 내놓는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왼쪽부터 코리아나 '엔시아', 바닐라코-베네통 콜라보레이션.

뷰티업계 '컬러 마케팅' 활발

클렌징 브랜드도 '색' 강조… 제품 구매 시 할인

뷰티업계가 톡톡 튀는 색상으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 잡는 '컬러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시각은 사람의 오감(五感) 중 감정을 자극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감각 기관으로, 구매와도 직결된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코리아나화장품은 오렌지색·초록색 등 비타민C와 B를 상징화한 컬러 마케팅으로 화장품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엔시아'를 리론칭했다.

엔시아는 1999년 첫 출시부터 '바르는 비타민 화장품'이라는 독특한 콘셉트와 함께 아이덴티티를 살린 컬러 마케팅으로 화제를 모았다. 특히 '오렌지색 엔시아' '초록색 엔시아'로 불리며 20~30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오렌지색의 경우 출시 4개월만에 매출 1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기존 컬러 마케팅이 메이크업 브랜드에만 국한돼 있었다면, 최근에는 클렌징 브랜드에서도 '색'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신제품 '딥클린 브라이트닝 포밍 클렌저'를 출시한 뉴트로지나는 '컬러풀 라이프 시작'이라는 제품의 콘셉트를 살리기 위해 이색 마라톤 축제 '컬러 미 라드 서울'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 행사 당일 뉴트로지나는 세안 부스 '딥 클린 존'을 마련, 주요 타겟인 20대 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 써볼 수 있도록 해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 냈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상이 강점인 메이크업 브랜드에서는 협업 바람이 거세다.

바닐라코는 패션 브랜드 베네통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메이크업 컬렉션 '컬러스(COLORS)'를 선보였다. 바닐라코만의 독특한 콘셉트에 올 시즌 유행하는 오렌지와 블루, 오키드 컬러를 베네통의 색감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정된 컬러 제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주는 이색 프로모션도 눈길을 끈다.

VDL은 컬러데이 프로모션을 진행, 메이크업 브랜드로서의 아이덴티티와 입지를 굳히고 있다. 지난 달에는 '화이트 컬러데이' 기간 여름철 청량함을 더해주는 화이트 컬러 아이섀도·네일 컬러 등 약 100개 제품을 할인 판매했다.

/박지원기자

뉴스&뉴스

홈플러스 쇼핑몰, 15일까지 '몰빵 데이'

● 홈플러스는 오는 15일까지 영등포점·월드컵점·칠곡점·동광주점 등 전국 24개 매장에서 유명 패션 브랜드의 사계절 상품을 최대 80%까지 할인 판매하는 '몰(Mall)빵 데이' 행사를 벌인다.

주요 품목으로는 남성복 런던포그, 솔루스의 여름 티셔츠 1만원, 겨울 점퍼류를 5만원부터 판매한다. 인기 아웃도어 브랜드인 콜핑과 레드페이스는 겨울 다운점퍼 5만원을 비롯해 여성복 쉬즈미스·수스·ab plus는 다운점퍼와 모직코트·패딩 베스트 등 겨울 아우터를 최대 80% 할인해 판매한다.

아동 브랜드 트윈키즈·밤비노는 겨울 패딩점퍼를 1만9000원에, 바니플랫은 전 상품 1+1 행사를 진행한다. 5만원 이상 구매객에게 하루 선착순 500명 한정으로 신라면 또는 키친타올을 증정한다.

롯데百, 8월 한 달 아웃도어 신상 할인

● 롯데백화점은 8월 한 달 동안 전 점에서 올 가을·겨울 시즌 신상품을 출시한다.

'노스페이스' '코오롱스포츠' '네파' '밀레' '에이글' 등 2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총 120여 스타일의 신제품을 내놨다. 특히 전년에 참여하지 않았던 '라푸마' '빈폴아웃도어' '디스커버리' 등도 참여하고 스타일 수도 확대됐다.

행사에선 '코오롱스포츠' 안타티카·뉴벌컨 등 6가지 품목의 다운재킷 구매시 20% 할인 판매한다. 행사 후엔 정상가로 가격이 환원된다.

신세계百, 15일부터 '아이 메이크업' 행사

● 신세계백화점은 15~24일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아이 메이크업을 찾아주는 이색 행사를 벌인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신세계백화점 앱(APP)으로 원하는 점포와 브랜드, 날짜를 지정 신청해 24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행사에선 자신의 피부톤과 어울리는 컬러부터 올 가을 트렌드인 자연스런 메이크업 등 혼자 하기 어려운 아이 메이크업 방법을 여성 고객들에 전달해 합리적인 화장품 소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영일기자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색다른 추석을~"

한가위 맞이 패키지·선물세트 선봬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예년보다 이른 추석을 맞아 '어나더 추석 패키지'와 '추석 햄퍼&선물세트'(사진)를 선보인다.

먼저 실속 있는 가격에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패키지는 다음 달 7~14일 이용 가능하다. '도심 속에서 즐기는 편안한 추석'이라는 콘셉트로 기획됐다. 안락한 디럭스 룸에서의 1박과 객실 내 무료 인터넷, 르네상스 레크리에이션 센터 무료 이용 등이 포함된 '어나더 추석 패키지Ⅰ'과 카페 엘리제 2인 조식 등이 추가되는 '어나더 추석 패키지Ⅱ'로 구성돼 있다.

또 호텔은 더 베이커리에서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추석 햄퍼&선물세트를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판매한다. 준비되는 메뉴는 ▲프리미엄 명품 갈비세트 ▲프리미엄 햄퍼 ▲프리미엄 칠레 와인&치즈세트 등이다. 문의: 02)2222-8654

/황재용기자 hsoul38@

metro entertainment

“비중 욕심? 없다면 거짓말이죠”

‘너희들은 포위됐다’ 어리바리 신입 경찰 **박정민**

안재현, 나와는 다른 세계 사람
고대서 한예종 영화과 재입학
감독서 배우로 목표 바꿔 전과

배우 박정민(27)은 자신의 외모를 “못생겼다”고 평가했다. 이목구비가 선명하지도, 키가 크지도, 피부가 하얗지도 않다. 그러나 그의 외모는 가상의 인물과 만나면 한 몸이 된다. 2011년 영화 ‘파수꾼’으로 데뷔했다. 눈빛이 날카롭고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학생을 연기했다. 지난달 17일 종영된 SBS 드라마 ‘너희들은 포위됐다’(이하 ‘너포위’)로 처음 안방 시청자를 만났다.

◆ ‘너포위’ 출연 약점 들켜 후련

그는 “가장 힘들었던 건 배우로서의 약점을 들킨 거”라며 미니시리즈 첫 출연 소감을 전했다. “데뷔 때부터 연기 못한다는 평가는 안 들었는데 이번 작품을 하면서 속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 기대만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라는 걸 알릴 수 있어서 후련했죠.”

어리바리한 신입 경찰 지국 역을 맡았다. “드라마의 묘미를 느꼈어요. 대본을 기다리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할까’ ‘뭘 고치지’를 생각하며 지국을 완성했죠. 신입 경찰 중 가장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지만 회가 거듭될 수록 어른스럽고 순발력 있는 인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경험하지 않았던 감정을 연기하는 건 힘들어요. 특히 지국은 저와 매우 다르거든요. 친구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박정민은 울지만 지국은 내 일인 것처럼 슬퍼할 거예요.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실재와 다른 인물이기에 섬세하게 지국을 연출했다.

“지국은 ‘대구대구 은대구(이승기)’라고 애교 있게 말하지만 저는 그런 행동이 오그라들어요. 컵 잡는 손까지 신경 썼죠. 안경을 끼고 나오는 것도 제가 한 설정이에요. 지국은 어리바리하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안경을 잃어버리지 않게 줄을 달아 준 거라고 텍스트 이외의 것을 상상했죠. 실제 시력은 1.0입니다.(웃음)”

◆ 시청률?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너포위’는 종영까지 수목드라마 1위 자리를 내어 주지 않았다. 그러나 시청률은 10% 초반대 였고 인기를 체감할 수 없다는 평가다.

“‘별에서 온 그대’가 엄청 셌나 봐요. 처음 시청률이 하락했을 때 현장 나가기가 무서웠어요. 그런데 아무도 시청률 이야기를 안하고 할 일을 하더라고요. 목표 시청률을 낮추면서 열심히 하자는 주의였죠. 단지 전 드라마 끝나고 ‘이 좋은 사람들을 다시 못 보는 구나’ 싶어 아쉬웠어요.”

그는 “좋은 친구를 얻어 기분이 좋다”고 출연 배우들을 추억했다.

“처음엔 불편했어요. 출연 배우들이 다 유명하잖아요. 안재현은 ‘안재현입니다’라고 소개하기 전에 그인 걸 알죠. 그런데 저는 다 설명해야 했어요. 소개할 타이밍을 못 잡겠더라고요.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먼저 다가와줘서 고마웠어요. 서이숙·임원희 선배들과는 이야기하느라 시간가는 줄 몰라요.”

안재현과는 남남케미를 내며 감초 역할을 했다. “서로 많이 의지했어요. 안재현은 외모부터 저와 다른 세계의 사람이죠. 궁금한 게 많았어요. 저는 오글거려서 하지 못하는 ‘대박’ ‘레알?’ 이런 말도 해요. 처음엔 피부도 하얗고 키도 크고 눈도 찢어져서 다가가기 힘들었는데 정말 착하고 ‘얘만큼 좋은 사람이 있을 까’ 싶어요. 제가 빠른 87이지만 친구하기로 했습니다.(웃음)”

◆ 극단 ‘경’ 300% 수익 올려

고려대 인문학부에 진학했다가 2006년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영상원으로 재입학 했다.

“고집이 세서 마음먹은 일은 해내야 해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를 꿈꿨지만 ‘내가 무슨’이라는 생각에 포기하고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결심했죠. 한예종 입학 때 아버지는 심부전증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으셨어요. 영화과로 입학해서 부전공으로 연기 수업을 듣다가 오디션을 보고 연기과로 과를 옮겼죠. 한예종 역사상 첫 전과자입니다.”

그는 올 초 극단 ‘경’을 만들었다. “300% 수익을 올렸어요. 대학 동기나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했죠. ‘경’은 거울을 뜻해요. 연극이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죠. 윤영선 선생님이 쓰신 ‘G코드의 탈출’을 선보였어요. 남녀의 이별이야기고 철학적이지만 누구나 한 번 쯤 겪을 법한, 연인에게 찌질해 보일까봐 차마 발설하지 못한 말들을 대신 해주고 싶었어요.”

작품 속 비중 있는 역할에 욕심을 보이기도 했다.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렇다고 무리하진 않을 거예요. 성지루 선배가 ‘연기 할 때 네가 보이려면 상대방을 도와주는 연기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저도 메인 스토리를 이끄는 배우가 되겠죠?”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사진/김민주(라운드테이블)·디자인/김아람

전 남편의 결혼식,
하늘에서 시체가 떨어졌다!

tvN 월화드라마

마이 시크릿 호텔

my secret hotel

킬.링.로.맨.스

연출 홍종찬 극본 김도현 | 김예리

8월18일 {월} 밤11시 tvN 첫방송

싸이 컴백 앞서 화끈한 워밍업

'시티브레이크' 80분 공연

월드스타 싸이가 글로벌 신곡 발표에 앞서 국내에서 4만5000여 팬들 앞에서 화끈한 워밍업을 했다.

싸이는 9일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음악 축제 '현대카드 슈퍼콘서트-시티브레이크 2014'에 출연했다. 그는 전설적인 헤비메탈 밴드 오지 오즈번의 공연에 앞서 오후 6시 메인 무대인 '슈퍼스테이지'에 올랐다.

싸이는 "데뷔 당시만 해도 이토록 롱런하리라 아무도 예상 못한 가수, 여러 수식어를 뒤로 한 채 그냥 가수 싸이"라는 인사와 함께 무대를 시작했다. 그는 '챔피언' '연예인' '흔들어 주세요' '라잇 나우' '아버지' '강남스타일' 등 80여 분간 스무곡 가까이 들려줬다. 마치 단독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열광적인 무대였다. 강렬한 메탈 사운드의 '챔피언'을 비롯해 라이브 밴드 연주의 구성에 맞춰 록 스타일로 편곡된 히트곡이 색다른 느낌을 전했다.

싸이는 최근 발표한 신곡 '행오버'를 들려주지 않아 아쉬움을 줬다. 그러나 최고의 히트곡 '강남스타일'을 부르자 스탠딩석은 물론 좌석의 관객들까지 일제히 말춤을 추며 열광했다.

한편 싸이는 조만간 댄스곡 '대디'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배우 정우성, 그룹 2NE1의 씨엘, '리틀싸이' 황민우가 출연하는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다.

/유순호기자

JYP 가수 총출동 콜라보쇼

2PM·미스A·갓세븐 등 화려한 무대 선사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합동 콘서트 '2014 JYP 네이션-원 MIC'을 개최해 6000여 명의 관객에게 다양한 무대를 선사했다.

9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공연에는 소속사 대표 가수 겸 프로듀서인 박진영을 비롯해 2AM, 2PM, 선미, 핫펠트(예은), 미스A, 백아연, 15&, 갓세븐, 버나드박 등이 무대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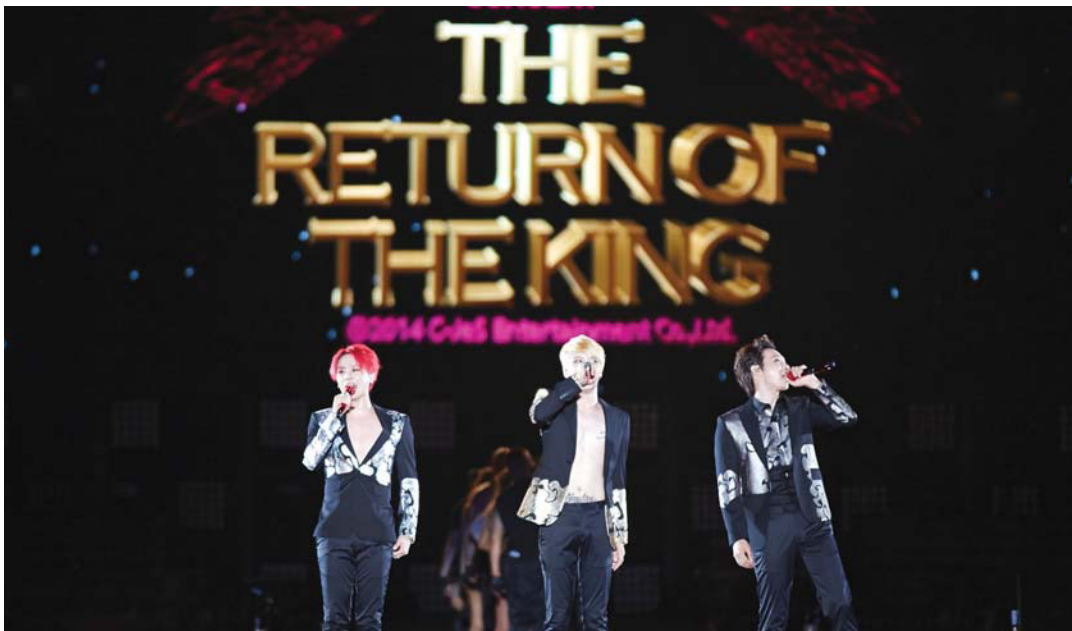
하나의 마이크로 JYP 소속 가수들을 연결한다는 콘서트 제목 '원 MIC'에 걸맞는 다양한 합동 무대로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다.

암전된 무대에서 박진영이 가장 먼저 등장했다. '날 떠나지마'의 전주를 키보드 애드립 연주로 소화한 박진영에 이어 차례로 갓세븐, 버나드박, 2PM, 2AM, 15&, 백아연, 선미, 미스A, 핫펠트(예은) 등 모든 출연진들이 등장하며 팬들의 뜨거운 함성 속에 콘서트가 시작됐다.

SBS 'K팝스타 3' 우승 후 공식 무대에 처음 오른 버나드박은 감미로운 목소리로 '더 라스트 타임'을 불렀다. 또 미스A 수지와 '대낮에 한 이별'로 입을 맞췄다.

그 외에도 백아연과 갓세븐의 마크·잭슨·뱀뱀이 부른 '어 굿 보이', 2AM 슬옹과 백아연의 '그대네요', 15& 백예린·2AM 조권·2PM 준케이의 '문득' 등 특색 있는 합동 무대가 이어졌다.

서울 공연으로 막을 연 '2014 JYP 네이션-원 MIC'는 30일 홍콩 아시아 월드 아레나, 다음달 5~7일 일본 도쿄 국립 요요기 제1체육관에서도 열린다.

/유순호기자

JYJ 잠실벌 수놓은 '왕의 귀환'

9일 밤, 콘서트 '더 리턴 오브 더 킹' 3만 관객 열광

그룹 JYJ(김재중·박유천·김준수)가 3년 9개월 만에 국내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3만여 팬 앞에서 JYJ는 9일 오후 8시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정규 2집 발매 기념 아시아투어 '2014 JYJ 콘서트 더 리턴 오브 더 킹'의 서막을 열었다.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홍콩, 베트남, 대만, 태국 등으로 이어지는 투어의 첫 공연으로 JYJ는 거대한 야외 무대에서 변함없는 인기를 확인했다.

가로 100여m의 대형 무대와 80m의 돌출무대에서 대규모 스타디움에 들어찬 관객과 가까이서 호흡했다. 또 공연 내내 펼쳐진 다양한 무대 연출과 화려한 영상은 JYJ의 노래와 춤의 매력을 극대화했다.

JYJ는 최근 발표한 2집 '저스트 어스' 수록곡 위주로 공연을 구성해 관객들은 최초로 2집 수록곡들을 라이브로 즐길 수 있었다. 얼터너티브 록과 팝이 조화를 이룬 '크리에이션'을 시작으로 '바보 보이' '대드, 유 데어' '렛 미 시' 등 신곡을 연달아 부르며 초반부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새 앨범 수록곡의 솔로곡인 '디어 J'(김재중), '7살'(김준수), '30'(박유천)을 연이어 부르며 멤버별로 개성있는 목소리를 느끼게 했다. 고조된 분위기를 몰아 김준수·박유천·김재중은 차례대로 두 곡씩 솔로 무대를 꾸몄다. 다양한 영역에서 솔로 활동을 하며 쌓은 내공과 멤버별 매력이 무대에 다양하게 펼쳐졌다.

JYJ의 첫 OST인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의 주제가 '찾았다'를 부르며 공연 후반부를 시작했다. 월드와이드 앨범 '더 비기닝'의 수록곡 '비 마이 걸'과 1집 타이틀곡 '인 헤븐'을 비롯해 2집 수록곡인 '소 소' '레팅 고' '발렌타인'을 연이어 불렀다. 마지막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아 멤버와 팬에게 아쉬움을 준 2집 타이틀곡 '백 싯'을 화려한 군무와 함께 불러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날 공연장을 찾은 관객은 JYJ를 상징하는 붉은 야광봉을 흔들며 이들의 춤과 노래, 행동과 말 한마디에 열광했다. 멤버들은 "오랜만에 JYJ의 공연을 하고 여러분을 만나 기분이 좋다. 잊지 않고 찾아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울컥한다. 3년만의 JYJ 콘서트인데 많이 와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한국에서 비틀스 된 느낌"

영국 드라마 '닥터후' 주연 내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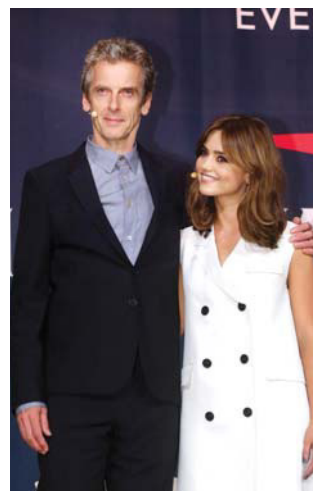
최장수 SF TV 드라마로 기네스에 오른 영국 드라마 '닥터후'의 새로운 주인공 피터 카팔디와 제나 루이스 콜먼이 9일 한국을 찾았다.

'닥터후'는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조종하는 타임로드 종족의 마지막 생존자 닥터가 타임머신 타디스를 타고 차원과 시공을 넘나들며 겪는 모험담을 그린 작품. 영국 BBC의 인기 드라마로 지난 1963년 11월23일 첫 방송을 시작해 그 동안 12명의 '닥터'를 배출하며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내한은 오는 23일 시즌8 첫 에피소드 방영을 앞두고 진행된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5개 대륙 7개 도시에서 진행되는 이번 월드투어에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이 유일한 방문 국가로 선정돼 화제를 모았다.

내한 행사는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카팔디와 콜먼은 "공항에서 많은 사람이 환대해줘 기뻤다. 마치 비틀스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며 내한을 환대한 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두 사람은 새 시즌이 전작들보다 더 활력 넘치고 변화무쌍한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카팔디는 "이번 시즌의 닥터는 신체를 사용하는 일이 예전보다 많다"고 밝혔다. 콜먼도 "카팔디가 닥터로 등장하면서 새 시즌은 이전과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드라마의 장수 요인으로는 시공간을 초월한 환상적인 여행의 매력을 꼽았다. 카팔디는 "사람들은 '닥터후'를 보면서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콜먼은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도 성공 요인이다"라고 말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

영국 드라마 '닥터후'의 주인공 피터 카팔디, 제나 콜먼이 9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닥터후' 서울 투어 행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명량' 1000만 돌파 새 역사 쓰다

최단 기록, 한국영화 10번째… 역대 1위 '아바타' 넘을까

영화 '명량'(감독 김한민)이 개봉 1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10일 투자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명량'은 10일 오전 8시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1022만6042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명량'은 한국영화 사상 열 번째 1000만 영화가 됐다. 외화까지 포함하면 열두 번째다.

'명량'의 1000만 돌파 기록은 종전 최단 기록인 '괴물'(22일)과 '도둑들'(22일)보다 10일이나 앞섰다. 역대 박스오피스 1위인 '아바타'(38일)를 비롯해 '7번방의 선물'(32일), '광해, 왕이 된 남자'(38일), '변호인'(33일)보다도 3배 격차의 빠른 속도다.

또한 '명량'은 개봉 2주차 주말인 지난 9일에도 109만5360명(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의 관객을 동원했다. 좌석 점유율도 87.6%에 달해 역대 흥행 1위인 '아바타'(1330만)의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영화 '명량'은 1597년 임진왜란 6년,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선과 맞서 싸운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지난달 30일 개봉한 영화는 역대 최고 오프닝 스코어, 역대 최고 평일 스코어, 역대 최고 일일 스코어 기록을 세우며 영화 흥행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위기 속에서도 백성과 나라를 생각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관객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빠른 흥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김한민 감독은 '명량'의 1000만 돌파로 명실상부한 흥행 감독으로 자리 잡게 됐다. 그는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몸소 찾아주는 걸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감독으로서 큰 떨림과 감사함이 앞선다. 다시 한 번 노고를 마다하지 않아준 스태프와 배우들,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순신 장군 역으로 열연을 펼친 최민식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용기와 신념,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날의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공감해준 관객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해적'도 선전 첫 주 100만 관람

'명량'과 쌍끌이 흥행 기대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하 '해적', 감독 이석훈)이 개봉 4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해적'은 지난 9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 또한 9일 하루 동안 47만6463명을 동원해 10일 오전 누적 관객수 133만 명을 기록 중이다.

'해적'의 100만 돌파 기록은 올해 설 극장가에서 865만 관객을 동원한 '수상한 그녀'보다 하루 앞선 기록이다. '명량'의 압도적인 기세 속에서도 '해적'은 개봉 첫 주 100만 관객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명량'과 함께 극장가 쌍끌이 흥행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해적'은 조선 건국 보름 전 고래의 습격으로 국새가 사라지자 이를 찾으려는 해적과 산적, 개국 세력 사이의 갈등과 모험을 그린 영화. 김남길, 손예진, 유해진 등이 출연하며 지난 6일 개봉했다.

/장병호기자

전도연·공유 멜로로 만난다

이윤기 감독 신작 '남과 여' 주연

'여자 정혜' '멋진 하루'의 이윤기 감독의 신작 '남과 여'가 전도연(**사진 왼쪽**)과 공유(**오른쪽**)의 캐스팅을 확정했다.

'남과 여'는 눈 덮인 핀란드에서 만나 금지된 사랑에 빠진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그리는 정통 멜로영화. 전도연과 공유는 여자 상민과 남자 기홍 역으로 출연한다.

'접속' '해피엔드' '스캔들-조선남여상열지사' 등 한국 대표 멜로영화에 출연했던 전도연은 이번 '남과 여'로 오랜만에 멜로 연기를 선보인다. '멋진 하루'의 이윤기 감독과의 재회도 기대를 갖게 한다. 최근 '도가니'와 '용의자'로 선 굵은 연기를 보여준 공유도 오랜만에 멜로영화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전도연·공유의 첫 커플 연기를 만날 수 있는 '남과 여'는 오는 11월 크랭크인 한다.

/장병호기자

'곤충왕국 3D', 환경부 공동 마케팅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기념

'아마존의 눈물' '남극의 눈물' 제작진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곤충왕국 3D'(감독 김진만, 김정민)가 환경부와 함께 공동 마케팅을 한다.

'곤충왕국 3D'는 MBC 창사 52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곤충, 위대한 본능'을 영화화한 작품. TV 다큐멘터리 제작 단계부터 환경부의 제작 지원을 받아 지금껏 공개된 적 없었던 곤충의 삶을 담아냈다.

이에 '곤충왕국 3D' 제작진은 환경부와 함께 다음달 29일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를 기념한 공동 마케팅을 하고 있다. 김진만 PD 사단이 연출한 영상을 활용해 기념 영상을 만들어 행사를 재미있게 알리고 있다. 또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VIP 시사회에 참석해 영화를 제작한 MBC 교양제작국과 내레이션에 참여한 아나운서 김성주, 아들 김민국·김민율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지난 4일 열린 '곤충왕국 3D' VIP 시사회에 참석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내레이션을 담당한 김성주·김민국·김민율 부자.

생물다양성협약은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함께 리우 3대 환경협약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배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도 평창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다음달 29일부터 3주 동안 열리는 제12차 총회는 전 세계 194개국 대표단, 국제기구, NGO 등이 참여한다. '곤충왕국 3D'는 오는 14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날씨

진흙에서 빛나는 진주 '메를로(Merlot)'

메를로는 카베르네 소비뇽과 더불어 프랑스 보르도 와인을 받치는 두 기둥이다.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맛과 멋을 풍긴다.

카베르네 소비뇽은 지롱드 강의 서쪽 메독 지방에서 최상위 등급의 와인을 만들어 내는 주류 품종이다. 이 곳에서 메를로는 블렌딩이 허용되는 5개 포도품종의 하나로서 카베르네 소비뇽의 조연에 머무른다. 참고로 5개 포도품종은 카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카베르네 프랑, 말벡, 쁘디 베르도를 일컫는다.

반면 같은 보르도 지방이지만 강의 동쪽에 위치한 쌩떼밀리옹과 뽀므롤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곳의 맹주는 단연 메를로다. 사실 메를로는 메독을 제외한 보르도의 다른 지방에서 대체로 생산량 우위에 선다.

메를로와 카베르네 소비뇽은 와인으로 변신했을 때 유사한 아로마(포도가 풍기는 향)를 풍긴다. 둘 다 블랙베리·체리 등 검은색 계통의 과일과 블랙커런트 등의 향이 난다. 그래서 종종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둘을 헷갈리기도 한다. 약간의 차이라면 메를로의 경우 가죽 혹은 흙내음이 느껴진다는 점 정도다.

향은 비슷하지만 둘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졌다. 카베르네 소비뇽은 만생종이어서 추위에 강한데다 화강암 등 척박한 토양을 좋아한다. 만들어진 와인 역시 거칠고 강건하며 탄닌이 풍부해 아주 떫다. 메를로는 반대로 조생종으로 가을에 접어들면 바로 수확기에 들어가며 진흙 섞인 땅을 좋아한다. 그래서 와인도 진흙을 만질 때의 느낌처럼 비단결같고 부드럽다.

이렇게 반대되는 성격이면서도 둘이 블렌딩되면 기막힌 궁합을 자랑한다. 카베르네 소비뇽이라는 턱시도에 메를로 나비 넥타이로 멋을 내었다고나 할까?

메를로는 그러나 주연으로도 손색이 없다. 최근에는 변신에 변신을 거듭해 팔색조가 됐다. 메를로가 자랄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인 뽀므롤 지방의 샤토 페트뤼스는 99% 메를로 와인으로 애주가들의 칭송을 받아왔다.

요즘은 신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메를로 100%의 훌륭한 와인이 다수 나온다. 특히 미국 서부의 최북단 워싱턴 주의 메를로는 세계 와인시장의 빛나는 존재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5					6	
		8	2	1				
			9		7			1
			7	2		8	1	
9	8						3	5
	2	4		5	3			
3			4		6			
				9	2	4		
	4					6		9

스도쿠 정답

7	1	5	3	8	4	9	6	2
6	9	8	2	1	5	3	4	7
4	3	2	9	6	7	5	8	1
5	6	3	7	2	9	8	1	4
9	8	7	6	4	1	2	3	5
1	2	4	8	5	3	7	9	6
3	5	9	4	7	6	1	2	8
8	7	6	1	9	2	4	5	3
2	4	1	5	3	8	6	7	9

			3	6			2	
1	3		4					
4	9	2				1		
				5		4	6	1
			7		9			
2	1	3		4				
		8				6	1	7
					7		5	9
	5			2	6			

5	8	7	3	6	1	9	2	4
1	3	6	4	9	2	5	7	8
4	9	2	8	7	5	1	3	6
8	7	9	2	5	3	4	6	1
6	4	5	7	1	9	3	8	2
2	1	3	6	4	8	7	9	5
9	2	8	5	3	4	6	1	7
3	6	4	1	8	7	2	5	9
7	5	1	9	2	6	8	4	3

문제 제공=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직장은 만족, 언제쯤 아이가 생길까요
취침 방향만 잘 살펴봐도 좋은일 있어

Q zkvpemahd 여자 78년 음력 9월 23일 낮12시
남자 78년 음력 10월 14일

전통적 유교집안에 태어나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은 좋은데 다니나 어찌어찌하여 결혼이 늦어졌다가. 2년 전에 결혼을 하였는데 남편도 같은 78년생 음력 10월 14일입니다. 시는 잘 모릅니다. 직장에서 크게 피곤함은 없으나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네요. 처음에는 아들을 바랐으나 이제는 딸 아들 구별 안하고 2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어디 가서 보니 아이는 있다고 하는데 언제쯤이나 아이가 생길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반적 운세도 궁금합니다.

A 어느 글에서 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는 엄마 없는 자식이라고 읽었습니다. 모성은 원천적이고 원초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 없는 가족도 불쌍한 존재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엄마의 역할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합니다.

사주학(四柱學)음양오행에서 생명의 탄생은 수(水)와 화(火)의 조화이므로 적절한 수(水)기운과 화(火)기운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착상(생명을 잉태 할 때)시에 음의 기운인 여자는 수 기운이 되고 양의 기운인 남자는 화 기운이 됩니다. 만약 남자가 화 기운이 없다면 생명을 일으키지 못하므로 남자의 사주에 화 기운이 들어 올 때 아기가 생기며 만약 여자가 수 기운이 없다면 수 기운이 들어 올 때 임신이 됩니다.

귀하와 남편의 사주를 보면 귀하는 화 기가 너무 강합니다. 남편도 수 기가 있으나 충살(沖殺)을 당하고 있으며 올해 갑오년(甲午年)에 무오대운(戊午大運)으로 화기가 많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무 조열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며 남편의 수(水)기가 그 화(火)를 제어 할 정도가 아니어서 애가 안 들어서는 것입니다.

2014년 음력 11월·2015년 3월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 시기가 지나면 2016년이 지나 40이 넘어야 하니 문제입니다.

먼저 취침의 향방을 살펴보십시오. 방문이나 화장실 쪽으로 머리를 두지는 않았느니 살펴보고 서북방향으로 두침을 두면 에너지를 한껏 흡수하여 문제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풍수적 의미에서 이론이 제각각이고 논리성이 결여 된다고 하는 부류도 있겠으나 두침 방향만 잘 정리하여도 운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11일 (음 7월 16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원칙에 어긋난 행동은 삼가라. **60년생** 신변에 좋은 변화가 있다. **72년생** 위기 피할 우회도로가 없으니 정면 승부할 것. **84년생** 무능한 상사 때문에 답답하다.

49년생 화목하려면 본인이 달라져야 한다. **61년생** 할 말이 많아도 아껴라. **73년생** 쇼크 받은 일은 곧 정상화 된다. **85년생** 인생에 중요한 숙제를 받고 고민~.

50년생 뜻을 이루려면 기득권 버려라. **62년생** 상대 얕잡아 봤다간 매운맛 본다. **74년생** 이사 간다고 마시던 우물 침뱉지 말라. **86년생** 반가운 소식이 기다린다.

51년생 근거 없는 소문은 없다. **63년생** 서운한 감정은 빨리 잊어라. **75년생** 사업가는 방심하면 손발이 묶인 꼴이 된다. **87년생** 옛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52년생 사소한 약속도 꼭 지켜라. **64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76년생** 갑자기 친절하게 접근하는 사람은 경계하라. **88년생** 상사의 충고 받아들이는 게 신상에 좋다.

53년생 상식을 따르면 무리가 없다. **65년생** 좋은 문서가 들어오니 꼭 잡아라. **77년생** 청마가 푸른 초원을 질주하는 격이다. **89년생** 기회가 왔을 때 인생 밑그림 잘 그려라.

42년생 반대 심한 일은 접어라. **54년생** 생각도 못한 공돈이 생긴다. **66년생** 제정신이 아닌 동료 때문에 부글부글~. **78년생** 방심하면 경쟁자에 맥없이 당한다.

43년생 외출하면 얼굴만 붉힌다. **55년생** 과음으로 인한 객기는 부리지 말라. **67년생** 얄미울 정도로 약게 놀아야 손해가 없다. **79년생** 상황이 급해도 섣부른 선택은 말라.

44년생 기다리던 소식 문 앞 당도~. **56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68년생** 듣기 거북하더라도 끝까지 들어라. **80년생** 직장인은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된다.

45년생 마음 비우면 절충점 찾는다. **57년생** 철없는 배우자가 입장 난처하게 하는구나. **69년생** 우유부단한 처신이 이롭다. **81년생** 친구 도울 일이 생기니 유념하라.

46년생 귀중품 잃지 않도록 조심~. **58년생** 멀리서 반가운 벗이 찾아온다. **70년생** 좋은 일에는 마가 끼니 대비할 것. **82년생** 주변의 충고 받아들이는 게 이롭다.

47년생 외면하기 어려운 부탁받는다. **59년생** 심신이 피곤할 땐 쉬어라. **71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항상 언행 조심~. **83년생** 새 일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추신수 하루에 4개 통산 1000안타

메이저리그 10시즌 만에 달성… 아시아 선수 세 번째

가다서다를 반복하던 추추트레인이 마침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2·사진)가 10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미닛메이드파크에서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경기에서 올 시즌 최초로 하루 4개안타를 쳤다. 이날 전까지 시즌 96안타와 통산 996안타를 기록했던 추신수는 개인 통산 5번째 시즌 100안타와 메이저리그 입성 10시즌 만에 통산 1000안타를 동시에 달성했다.

아시아 타자가 메이저리그에서 1000안타 이상 친 것은 역대 세 번째며 현역 선수 중 두 번째다. 뉴욕 양키스의 스즈키 이치로가 2811안타로 1위이며, 2012년 은퇴한 마쓰이 히데키가 1253안타를 기록했다.

추신수가 한 경기에서 4개의 안타를 친 것은 지난해 8월 22일 애리조나전 이후 1년 만이다.

지난해 두 차례 한 경기 4개의 안타를 기록했던 추신수는 올해 3개의 안타를 친 것이 최다 기록이었다. 깊은 타격 부진에 빠져 있던 추신수는 최근 5경기에서 20타수 9안타를 치며 서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즌 타율은 0.238에서 0.248로 뛰어올랐다.

추신수의 방망이는 1회부터 날카롭게 돌아갔다.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한 그는 1회초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스콧 필드먼의 3구째 커브를 때려 중견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뽑았다. 3회에는 1사 후 필드먼의 커터를 받아쳐 중전 안타를 만들었다. 5회 세 번째 타석에서는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7회 1사 1·2루에서 다시 안타를 만들었다.

9회에도 마이클 폴티네비츠의 한가운데 시속 159㎞ 직구를 때려 네 번째 안타를 기록했다.

이날 텍사스는 선발 다르빗슈 유가 4이닝 9피안타, 4볼넷, 6실점(5자책)으로 난조를 보였고 추신수의 뒤를 잇는 후속 타자들의 부진까지 더해지며 3-8로 패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박인비 LPGA 시즌 2승 눈앞

마이어 클래식 3R 선두… 신지애 JLPGA 2승

박인비(26·KB금융그룹·사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시즌 두 번째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박인비는 10일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의 블라이드필드 골프장에서 열린 마이어 LPGA 클래식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쳤다. 중간합계 13언더파 200타로 2라운드에 이어 단독 선두를 지켰다. 6월 매뉴라이프 클래식 이후 2개월 만에 LPGA 시즌 2승 가능성을 높였다.

2위에는 올해 LPGA 투어에 데뷔한 이미림(24·우리투자증권)이 한 타 뒤진 12언더파 201타에 올라 박인비와 우승 경쟁을 벌이게 됐다.

박인비는 1번홀(파5)과 9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았고, 후반에 한 타를 더 줄이며 단독 선두를 유지했다. 14번홀(파3)과 16번홀(파4)에서 10m 이상 긴 퍼트를 성공하면서 버디를 잡았다.

한편 이번 시즌부터 LPGA 투어 활동을 중단하고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 전념하는 신지애는 메이지컵(총상금 9000만엔) 우승을 차지했다.

신지애는 10일 일본 홋카이도의 삿포로 국제골프장 시마마쓰 코스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최종합계 12언더파 204타로 우승했다. 6월 니치레이 레이디스 이후 시즌 2승째를 거뒀다. 신지애는 시즌 상금 5000만엔을 돌파(5055만7333엔)하며 JLPGA 투어 시즌 상금 순위 5위로 올라섰다. /유순호기자

류현진 애틀란타 상대 14승 도전

13일 원정경기 등판… 지난해 PO 설욕전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다저스·사진)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상대로 시즌 14승에 도전한다.

10일 MLB닷컴에 따르면 류현진은 13일 오전 8시10분 미국 조지아주 터너필드에서 열리는 애틀랜타와의 방문경기에 다저스 선발로 등판한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인 지난달 13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부터 놀라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어 23경기 만에 14승(5패) 달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난해에는 30경기를 모두 치른 성적이 14승(8패)이었다.

류현진은 남은 경기를 감안하면 박찬호가 2000년 다저스에서 작성한 한국인 투수 최다승(18승 10패) 기록 경신도 가능할 전망이다.

류현진은 최근 5경기에서 모두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하며 4승 무패를 달리고 있다. 이 기간 평균자책점은 1.91(33이닝 7자책점)로 특급 에이스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애틀랜타는 지난해 두 차례 상대해 승수를 쌓지는 못했지만 평균자책점 2.13(12⅔이닝 3자책점)으로 류현진이 강한 면모를 보이는 팀이다. 그러나 포스트시즌에서는 큰 상처를 안겼다. 지난해 10월 7일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3차전 애틀란타와의 경기에서 류현진은 3이닝 동안 안타 6개와 볼넷 1개로 4실점하고 조기 강판당했다.

당시 류현진과 상대한 저스틴 업튼(2타수 2안타), 프레디 프리먼(2타수 1안타), 에번 개티스(2타수 2안타) 등은 여전히 경계해야 할 선수다.

그러나 애틀랜타는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2위를 달리지만 팀 타율 0.245로 내셔널리그 9위에 머물러 있다. 특히 류현진은 최근 새롭게 장착한 고속 슬라이더와 최고시속 153㎞의 고속 직구, 명품의 가치를 더해가는 체인지업을 앞세워 상대 타선에 맞선다. /유순호기자

손연재 월드컵 개인종합 동메달

세계 최강 맞붙어 전 종목 결선

손연재(20·연세대·사진)가 국제체조연맹(FIG) 던디 월드컵에서 개인종합 동메달을 획득했다.

손연재는 9일(현지시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대회 개인종합 경기에서 리본 17.600점, 후프 17.550점, 볼 17.750점, 곤봉 17.350점 등 합계 70.250점을 받아 3위를 기록했다. 손연재는 3월 모스크바 그랑프리 이후 올 시즌 출전한 6차례 대회에서 모두 메달을 따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금메달 전망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러시아의 야나 쿠드랍체바와 마르가리타 마문 등 세계 최강자들이 출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손연재는 각 종목 8위까지 주어지는 종목별 결선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후프·볼·곤봉에서 3위, 리본에서 4위를 기록했다.

1위는 쿠드랍체바(73.900점)가 차지했다. 쿠드랍체바는 후프 18.700점, 볼 18.550점, 곤봉 18.500점, 리본 18.150점 등 전 종목 18점대를 받았다. 마문은 후프 17.100점, 볼 18.700점, 곤봉 18.650점, 리본 17.750점 등 합계 72.200점으로 2위에 올랐다.

아시안게임에서 손연재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덩썬웨는 후프 17.450점, 볼 17.450점, 곤봉 16.250점, 리본 17.000점 등 합계 68.150점으로 7위에 그쳤다. 다른 경쟁자인 엘리타베타 나자렌코바가 67.950점으로 8위, 자밀라 라크마토바(이상 우즈베키스탄)가 66.450점으로 12위에 올랐다. 일본의 사쿠라 하야카와(64.750점), 미나가와 가호(61.500점)는 각각 20위, 28위를 기록했다. /유순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10일

■광주

롯데	200	000	100	3
KIA	200	031	00X	6

△승 = 김병현(3승 2패) △세 = 어센시오(2승 18세이브) △패 = 장원준(8승 7패) △ 홈런 = 최준석 19호(1회2점) 오승택 1호(7회1점·이상 롯데) 필 16호(1회2점·KIA)

프로축구 전적 10일

인천	2	0	경남

△득점 = 진성욱③(후8분) 이보④(후48분·PK·이상 인천)

수원	1	0	제주

△득점 = 김은선③(전41분·수원)

서울	2	0	부산

△득점 = 몰리나③(후33분·PK) 에스쿠데로④(후44분·이상 서울)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14-2-437호(2014. 6. 5 현재)

따뜻한 금융

여름을 얼려버릴 신한의 쿨~한 혜택!

신한에서 환전 받고 푸짐한 선물로 달콤하고 시원한 여름을 즐기자!

2014 Summer Dream 환전·송금 Festival

• 행사기간 : 2014. 6. 23(월) ~ 9. 13(토)

신한은행만의 특별한 경품 이벤트!

신한은행에서 USD 500 상당액 이상 환전 · 송금하고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응모만 하면 OK!

한옥호텔 '라궁' 로열스위트 2박 숙박권 (2인 기준 패키지 상품)

롯데호텔 상품권 30만원

3등(5명)

SKROSS 고급 여행용 어뎁터

4등(50명)

파리바게뜨 치즈케익 쿠폰

알짜 혜택이 가득한 11종 썸머 쿠폰북!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USD 500 상당액 이상 환전만 하면 OK!

- 공항철도, 공항리무진, 포켓WiFi, 롯데면세점, 버거킹, 투썸플레이스, 빌리프 수분크림 등 해외여행 맞춤형 혜택 가득!

※ 공항소재 영업점(인천, 김포, 제주) 및 환전소는 본 이벤트에서 제외됩니다. ※ 경품 이벤트는 응모 고객에 한하며, 추첨 결과는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합니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내 연락불가시 당첨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신한은행에서 부담하며, 경품의 사양 및 종류는 은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쿠폰은 MMS 지원 휴대폰만 발송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이나 홈페이지(www.shinhan.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신한금융그룹 | 신한카드 | 신한금융투자 | 신한생명 |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 신한캐피탈 | 제주은행 | 신한저축은행 | 신한데이타시스템 | 신한아이타스 | 신한신용정보 | 신한PE투자자문